unesco

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세계시민교육으로 혐오표현 대응하기

교육자를 위한 핸드북



교육 2030

유네스코 교육부문

교육은 기본적 인권이자, 평화 구축 및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기반이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가장 우선시하는 분야다. 유네스코는 유엔의 교육 전문기구로, 이 기구의 교육부문은 특히 성평등과 아프리카에 중점을 둔 교육을 통해 전 세계 및 각 지역의 교육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국가별 교육제도를 강화하고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있다.

unesco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글로벌 교육2030 의제

교육 분야 유엔 전문기구로서 유네스코는 2030년까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통한 빈곤 해소를 위한 전지구적 운동의 일환으로 '교육2030 의제'(Education 2030 Agenda)를 주도하고 조정해 나가는 임무를 띠고 있다. 모든 SDGs 달성에 있어 필수적인 교육은 그 자체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육2030실행 계획'은 이러한 야심찬 목표와 책무를 실행에 옮기기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교육 2030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서울에 위치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증진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 연구, 교육자 역량 강화 연수, 교육 자료 개발, 교사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2026년 발간

ⓒ 유네스코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26

ISBN: 978-92-3-000287-9
DOI: https://doi.org/10.54675/PXRY6896

이 책은 오픈 액세스 정책에 따라 다음의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ttribution-ShareAlike 3.0 IGO' (CC-BY-SA 3.0 IGO)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igo/) 이 책의 내용을 활용할 시에는 유네스코 오픈 액세스 기록관 (UNESCO Open Access Repository)의 이용약관 (https://www.unesco.org/en/open-access/cc-sa)을 준수해야 합니다.

별표(*)가 표시된 이미지는 CC-BY-SA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원제: *Addressing hate speech throug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 handbook for educators*

이 책의 원문은 유네스코가 2026년에 발간했습니다.

이 출판물에 나오는 명칭과 자료는 특정 국가, 영토, 도시, 지역이나 당국의 법적 지위 또는 국경이나 경계의 확정에 관한 유네스코의 그 어떤 의견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출판물에 표현된 견해와 의견은 저자들의 것이며, 반드시 유네스코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거나 기구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번역: 지선미, 이윤영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감수: 한건수 (강원대학교), 박순용 (연세대학교)
교열: 김보람 (불의여우 출판사)
표지 이미지: Jozef Micic/Shutterstock.com*; Miloje/Shutterstock.com*
내지 아이콘: The studio/Shutterstock.com*
디자인: UNESCO/Noam Le Pottier
한국어판 디자인·인쇄: 경성미디어
대한민국에서 인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간행물등록번호: BE-RND-2026-004

요 약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혐오표현에 맞서기

전 세계적으로 세 명 중 두 명은 정기적으로 혐오표현이나 유해한 콘텐츠를 접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이 소셜 미디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확산은 불평등, 불의, 포퓰리즘이나 기술의 오용 등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다양한 형태와 맥락에서 나타나며,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평화 구축 노력을 저해합니다.

교육은 혐오표현 대응에 있어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린 시기부터 이루어지는 세계시민교육은 사람들이 혐오표현을 인식하고 이에 도전할 수 있게 하며,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끄는 핵심 역량인 존중, 공감, 책임과 같은 가치를 함양하도록 합니다.

이 핸드북은 교육자들이 혐오표현의 정의, 발생 요인 및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적 틀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성을 증진하고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며 책임 있는 시민성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포용적 학습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실천, 활동 및 자료를 제시하여,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평화의 문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3명 중 2명

3명 중 2명은 정기적으로 혐오표현과 유해 콘텐츠에 노출됩니다.

이 핸드북은 2023년 유네스코와 유엔 집단학살 방지 및 보호책임 사무소(Office on Genocide Prevention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OSAPG)가 공동 발간한 「교육으로 혐오표현 대응하기: 정책 가이드」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unesco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unesco

세계시민교육으로 혐오표현 대응하기

교육자를 위한 핸드북

목 차

한국어판 발간사 8

발간사 9

감사의 글 10

이 핸드북에 대하여 11

- 들어가며 11
- 혐오표현 대응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역할 12
- 핸드북의 목적과 구성 13

1. 혐오표현의 개념과 발생 요인, 주요 양상 14

- 혐오표현이란? 14
- 혐오표현의 교차성 15
- 혐오표현의 매개 15
- 혐오표현의 발생 요인 17
- 혐오표현의 징후와 신호 18
- 미묘한 형태의 혐오표현 19
- 혐오표현 확산에서 기술의 역할 19

2. 실행영역: 실천 방안, 활동 및 자료 21

- 실행 영역 1: 교실 안팎에서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문화 구축하기 22
  - 실천 방안 22
  - 추가 자료 23
  - 상호 존중의 소통 원칙 세우기 24
  -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25
- 실행 영역 2: 문화 간 이해 역량 기르기 27
  - 실천 방안 27
  - 추가 자료 28
  - 무지의 장막 29
  - 공감 서클 30
  - 스토리 서클 32
  - 비판적 대화 카페 35

실행 영역 3: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 역량 기르기 37
실천 방안 37
온라인 정보 출처 평가하기 38
디지털 발자국 분석 41
음모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44

실행 영역 4: 혐오표현 인식하고 대응하기 45
실천 방안 45
혐오표현의 미묘한 형태 알아보기 47
연극 활동으로 탐색하는 혐오표현 49
역사적으로 뿌리 내린 갈등 (직·간접적으로) 풀어내기 50
역사적 사례 탐구하기 53
혐오표현 예방과 대응 전략 54
주변인 개입 56

추가 참고 자료 및 읽을거리 58
영상 자료 58
발표 자료와 활동 58
읽을거리와 강좌 59

한국어판 발간사

오늘날 혐오표현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그 심각성이 특히 더합니다. 이전에는 말이나 글, 이미지 등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 민족이나 인종을 멸시하고 악마화했다면,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표현은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며 개인과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이를 교묘한 방식으로 조장합니다.

한국 청소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혐오표현을 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즐겨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에는 편견을 강화하는 콘텐츠, 혐오를 조장하는 밈,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 등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친구가 공유해주거나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탓에 이런 혐오표현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조롱과 비하가 어느새 익숙한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기보다 차별과 적대감을 키우고 확산하는 환경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혐오표현에 맞서는 방법으로 세계시민교육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인간임을 자각하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향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세계시민교육이야말로 혐오표현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고 그 뿌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핸드북은 이러한 배경에서 유네스코가 2026년에 펴낸 혐오표현 대응 세계시민교육 지침서입니다. 혐오표현의 정의와 유형, 사회적 원인과 파급 효과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실 안팎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활동과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교육적 방법,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학습 환경 구축, 문화 간 이해 역량 함양,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 핸드북은 교육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이 핸드북의 발간 과정에서 유네스코와 긴밀하게 협력했으며, 이번에 한국어판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혐오표현에 맞서는 세계시민교육이 한층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이 자료가 교사와 교육 행정가, 그리고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께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종훈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

발간사


© UNESCO

혐오표현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를 분열시키고 신뢰를 약화시키며 폭력을 부추길 수 있는 강력하고 파괴적인 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과 전 세계의 긴밀한 연결 속에서 혐오표현은 더욱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자들에게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학교와 학습 공간은 가치가 형성되고 공감과 존중이 뿌리내리는 곳이며,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로운 이야기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며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고, 학습자들이 지역사회와 온라인 공간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역량을 키워줍니다.

유네스코가 2023년에 채택한「평화,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는 평화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와 포용, 대화가 존재하는 상태임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교육은 이해를 증진하고 갈등의 근원을 해소함으로써 이러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교육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모든 학습자가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정보의 흐름과 온라인 상호작용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환경에서 필수적인 공감 능력, 사회정서학습,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같은 역량을 증진하는 교수활동을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학습자들이 차별에 맞서고 인권을 수호하는 적극적인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 핸드북은 이러한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교육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유네스코와 유엔 집단학살 방지 및 보호책임 사무소(OSAPG)가 2023년에 발간한「교육으로 혐오표현 대응하기: 정책 가이드」를 토대로, 교육자들이 혐오표현이 설 자리가 없는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구와 전략, 사례를 제시합니다. 또한 본 핸드북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평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for Peace) 프로젝트, 그리고 2023년에 발간된 유네스코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유네스코의 활동 성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핸드북이 교육자와 학습자 및 다양한 공동체에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다양성이 환영받고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혐오표현이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어 가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쥔 (Qun Chen)
유네스코 교육 사무총장보

감사의 글

핸드북 개발은 크리스토퍼 캐슬(Christopher Castle) 교육 부문 평화 지속가능발전국장이 총괄하고, 카렐 프라카판(Karel Fracapane)과 체칠리아 바비에리(Cecilia Barbieri)가 감독했습니다. 본 핸드북의 기획과 관리는 미렌 곤잘레즈(Miren Gonzalez)와 쿠아니 키르 쿠아니(Kuany Kiir Kuany)가 담당하였으며, 가브리엘라 치에플로흐(Gabriela Cieploch)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핸드북은 시나 로벤스타인(Sina Laubenstein)의 초안 작성과 전략대화연구소(Institute for Strategic Dialogue, ISD) 전문가들의 초기 검토와 의견 제공이 없었다면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초안은 캐나다 지역사회 참여 및 폭력 예방 센터(Canada Centre for Community Engagement and Prevention of Violence)의 니콜 풀니에-실베스터(Nicole Fournier-Sylvester) 선임연구자문이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으며, 쿠아니 키르 쿠아니(Kuany Kiir Kuany)와 메리 지 소우자(Mary de Sousa)가 편집을 지원했습니다.

이 핸드북은 약 2년에 걸친 광범위한 검토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협의 워크숍에 참여한 남아시아 지역 교육자들의 기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 네팔, 스리랑카, 케냐(동아프리카 지역 대상)에서 각각 개최된 후속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여한 교육자와 정책 입안자들의 제안 역시 본 핸드북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핸드북은 유네스코 본부와 현장 사무소를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하는 동료들의 검토와 의견을 통해 더욱 발전되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민하오 첸(Minhao Chen), 세헤라자데 페달(Scheherazade Feddal), 모니카 라마(Monica Lama), 버지니아 엔테키타(Virginia Ntheketha), 조이스 포안(Joyce Poan), 드루바 라지 레그미(Druba Raj Regmi)가 참여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정보 부문에서는 올리버 밴 박스텔(Oliver Van Bockstael), 앨튼 그리즐(Alton Grizzle), 애들라인 훌린(Adeline Hulin), 미켈 에기레 이디아케즈(Mikel Aguirre Idiaquez), 미사코 이토(Misako Ito), 샘리타 메논(Samrita Menon), 존 오티에노 오칸데(John Otieno Okande), 애나 크리스티나 루엘라스(Ana Cristina Ruelas), 널자나 샤르마(Nirjana Sharma)가 참여했습니다. 사회·인문과학 부문에서는 올가 도브리안스카야(Olga Dobryanskaya), 마리아 키프리오투(Maria Kypriotou), 린다 티니오(Linda Tinio)가 검토에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핸드북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협력과 재정적 지원, 특히 지선미 연구개발실장과 이윤영 전문관의 기여 덕분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핸드북에 대하여

들어가며

최근 정보통신기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소셜 미디어, 인공지능(AI) 분야의 발전으로 혐오서사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도달범위가 한층 확대되면서, 혐오표현 대응은 전 세계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그 여파 속에서 개인이 디지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허위정보와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야기 및 혐오표현에 노출될 위험도 커졌습니다.[1] 여기에 공격적 포퓰리즘, 인종주의, 차별, 폭력과 무력 분쟁의 재발이 맞물리면서 혐오표현의 확산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2015년 채택된 유엔 교육 2030 의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4의 세부목표 4.7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데 있어 교육 전반, 특히 세계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성,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2]

2019년 「유엔 혐오표현 대응 전략 및 행동계획」[3]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혐오표현은 인권과 평화, 취약계층의 안전, 그리고 제도와 사회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 전반의 포괄적 접근이 시급합니다.

2023년에 채택된 「평화,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는 지속가능발전, 민주주의, 평화의 달성을 위협하는 허위정보, 오정보, 혐오표현, 온라인 괴롭힘의 전 지구적 확산에 대응하는 데 있어 교육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4] 따라서 교육, 특히 세계시민교육은 혐오표현에 대응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 전략대화연구소의 2021년 분석에 따르면, 극단주의 운동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회로 활용하여 허위 및 오도성 정보의 대규모 확산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는 보건 당국을 포함한 제반 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한편, 백신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 확산을 조장하고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2 유네스코. (2015). 교육 2030 — 지속가능발전목표 4, https://sdgs.un.org/goals/goal4#targets_and_indicators

3 유엔 혐오표현 대응 전략 및 행동계획, 6월 18일,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action_plan_on_hate_speech_en.pdf

4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ducation-peace-and-human-rights-international-understanding-cooperation-fundamental

혐오표현 대응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역할

세계시민교육은 개인이 분별력과 책임감을 갖추고 참여적인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접근으로, 학습 환경을 평화에 우호적인 여건을 갖춘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의 근간에는 인권, 사회정의, 성평등, 다양성, 연대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인간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혐오표현 대응 전략 및 행동계획」이 강조하듯, 세계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혐오표현 문제에 대응합니다:[5]

1.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 지구적 인식 높이기
2. 개인이 세계와 비판적으로 관계 맺고, 분별력과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 사회·정서적, 행동적 역량** 개발에 집중하기. 정보를 분석하고 편향을 식별하며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혐오표현에 대한 회복력 기르기
3. 구조적 불평등과 역사적 불의를 탐구함으로써, 편견과 차별을 포함한 다양한 세계적 과제와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인식하기
4.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포용적인 태도와 행동** 형성을 장려하기
5. **지역적 문제와 글로벌 문제를 연결**하고 다양한 사회적 도전과제가 서로 긴밀히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기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의 틀 안에서 교육자의 역할은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혐오표현과 차별의 발생 요인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재구성될 때, 교육 공간은 학습자가 안전하고 포용적이라고 느끼며,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혐오표현의 발생을 어렵게 하는 행동 양식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육자는 포용적이고 존중하는 태도의 본보기를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학습 문화와 학습자의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습자와 교육자 사이에 신뢰와 안전과 편안함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형성되면, 교육자는 괴롭힘·차별·혐오표현과 같은 상황을 신속히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각 학습자의 고유한 필요를 이해하고 적절히 지원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세계시민교육은 개인적·관계적·제도적 차원 모두에서 변혁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혐오표현에 대응하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델이 되는 학습 공간을 만들어 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5 앞의 자료, 11쪽

핸드북의 목적과 구성

2023년 유네스코와 유엔 집단학살 방지 및 보호책임 특별자문관 사무소는 교육을 통한 혐오표현 문제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육으로 혐오표현 대응하기: 정책 가이드」를 공동으로 발간하였습니다.[6] 이 핸드북은 「유엔 혐오표현 대응 전략 및 행동계획」과 2021년 열린 '교육을 통한 혐오표현 대응 교육장관회의'에서 제시된 틀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인권교육, 폭력적 극단주의, 반유대주의, 인종주의 예방교육, 그리고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등 혐오표현 대응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요소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혐오표현 대응에서 교육이 수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고려할 때, 교육자를 위한 맞춤형 가이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핸드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교육자들이 혐오표현의 정의, 발생 요인, 그리고 그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개념적 틀**
2. 다양성을 증진하고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며, 책임 있는 세계시민의 태도와 행동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학교가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포용적 학습 환경을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 방안, 활동 및 자료**

이와 같이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본 핸드북은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침을 교육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 유네스코. (2023). 「교육으로 혐오표현 대응하기: 정책 가이드」 | 유네스코, https://www.unesco.org/ en/articles/addressing-hate-speech-through-education-guide-policy-makers

1. 혐오표현의 개념과 발생 요인, 주요 양상

이 장에서는 혐오표현이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정의하고 범주화하며, 이를 관련된 다른 문제들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혐오표현의 복잡한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교육자들이 이러한 광범위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본 장의 목적입니다. 아울러 이 장에서는 혐오표현을 논의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인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해서도 함께 다룹니다.

혐오표현이란?

혐오표현 대응은 이를 정의하는 복잡한 작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혐오표현의 정의는 표현의 자유 원칙을 수호하는 동시에 차별로부터의 보호라는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9년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이러한 균형의 중요성[7]을 강조하며 "혐오표현 대응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혐오표현이 더욱 위험한 형태, 특히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는 차별, 적대, 폭력을 선동하는 단계로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보호와 혐오표현 대응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8] 모든 형태의 혐오표현은 고통스럽고 대개 차별적입니다. 하지만, 혐오적 표현을 제한하거나 근절하려는 노력은, 다소 혼란스럽겠지만, 혐오발언을 하는 이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의 권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권리 주장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라바트 행동 계획(Rabat Plan of Action)」의 판단기준은 이러한 균형을 설정하는 데 분명한 지침을 제공합니다.[9]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며 민주사회가 기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지만, 「유럽인권협약」과 같은 인권 조약들은 특정한 표현이 개인과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제한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과 사회 전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10]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혐오표현 대응 전략 및 행동계획」은 혐오표현을 '말, 글 또는 행동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들, 다시 말해 그들의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또는 기타 정체성 요소를 이유로 공격하거나 경멸적·차별적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의사표현'으로 정의합니다.

7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www.un.org/sg/en/content/sg/statements/2019-06-18/secretary-generals-remarks-the-launch-of-the-united-nations-strategy-and-plan-of-action-hate-speech-delivered

8 세계인권선언 | 유엔, https://www.un.org/en/about-us/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

9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표현의 자유 대 혐오 선동: 라바트 행동 계획 | OHCHR, https://www.ohchr.org/en/freedom-of-expression
유네스코의 관련 비디오: 혐오 선동 방지에 대한 라바트 행동 계획, https://www.youtube.com/watch?v=ADrB32OSe3A

10 유럽평의회. (2020). Bookmarks – A manual for combating hate speech online through human rights education, Revised edition. https://rm.coe.int/bookmarksen2020-web2/16809e5789

이러한 혐오표현의 정의는 교육, 연구, 옹호 활동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특히 혐오표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집단·사회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심리적 고통과 사회 공동체 차원의 파장, 권리의 침해 등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특히 취약한 공동체는 혐오표현에 과중하게 노출되며 가장 빈번하고도 심각한 공격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셜 미디어에서는 취약한 공동체를 향한 혐오가 급증했으며, 보건 종사자, 언론인, 선출직 공직자와 같은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괴롭힘 역시 늘어났습니다.[11]

혐오표현의 교차성

혐오표현에 대한 교육적 대응은 혐오, 혐오범죄, 그리고 다양한 사회·정치적 문제들의 교차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혐오적 발언, 차별, 폭력의 다양한 형태는 종종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개인은 연령,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여러 요소에 따라 동시에 차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사회적 범주들의 상호 연계적 특성을 강조하며, 혐오표현이 복합적 요인을 근거로 개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배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차성을 이해하는 것은 교육자와 사회 모두에 필수적입니다. 혐오표현은 단순하고 단기적인 일률적 접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때로는 맥락에 따라 감춰진 채 나타나는 억압의 경험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별에 대응하고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이 주변화되거나 공격의 대상이 되는 방식이 복합적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혐오표현의 영향이 서로 연결된 여러 정체성의 층위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혐오표현의 매개

혐오표현은 노골적인 언어폭력에서 미묘한 일상적 차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허위 정보나 음모론 등의 다른 현상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오표현은 구술·문서·시각적 형태에 걸친 다양한 소통 방식을 망라합니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혐오를 조장하고 음모론을 전파하며 현실 세계의 폭력을 유발하는 데 점점 더 정교한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명·연설·보도·블로그·문자 메시지 등에 담긴 말과 글뿐 아니라, 사진과 영상, 비디오 밈, 그림과 같은 시각적 요소를 아우릅니다. 혐오표현과 그 관련 현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음모론** '부정적 의도를 가진 강력한 세력이 사건을 은밀히 조종하고 있다'는 믿음을 담은 이야기를 지칭합니다. 통상적으로 음모론은 소위 비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허구의 음모 세력을 상정합니다.[12]
  이러한 서사는 사건들을 영향력 있는 집단이 은밀한 음모를 꾸며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려 시도하며, 흔히 유대인 공동체가 불순한 목적으로 세계적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다고 묘사하는 등 반유대적 인식에 뿌리를 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음모론을 추종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해당 계획의 배후에 있다고 믿는 당국이나 기관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1 전략대화연구소. (2021). 음모론과 극단주의 사이: 장기적 코로나 위협? [Between Conspiracy and Extremism: A Long Covid Threat?], https://www.isdglobal.org/wp-content/uploads/2021/12/Between-Conspiracy-and-Extremism_A-long-COVID-threat_Introductory-Paper.pdf

12 유네스코. (2022). 음모론에 대응하기: 교육자들이 알아야 할 것. [Addressing conspiracy theories: what educators need to know],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1958

- **허위정보**는 '부정직한 정보 전달을 통해 사람들을 혼란시키거나 조종하려는 의도적인 그리고 흔히 조직적인 시도'로 정의됩니다. 이는 병행·교차적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해킹, 개인 신상 훼손 등 일련의 전술과 결합되어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3] 허위정보는 기만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유포되는 거짓 또는 오도성 정보로서, 정치·사회·경제적 목적을 위해 혼란을 야기하거나 신념 체계를 조작하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조작된 기사, 오도성 이미지, 기만적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됩니다.
- **정보 조작**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은폐·날조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 행위자들은 불안과 혼란을 이용하여 흔히 지정학적 성격을 띠는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정보 작전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이는 외국의 정보 조작 및 간섭(FIMI: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Interference)[14]으로도 지칭됩니다.
- **괴롭힘(bullying)**은 '원치 않는 부정적 행동을 포함하는 공격적 행동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권력이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괴롭힘은 신체적, 심리적, 성적, 그리고 사이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됩니다.[15]
  - 신체적 괴롭힘은 때리기, 발로 차기, 개인 소지품을 빼앗는 행위 등 반복적인 공격 행위를 수반하며, 통상적인 신체적 폭력과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심리적 괴롭힘은 언어적 폭언, 사회적 배제, 또는 상처를 주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정서적 피해를 입히며, 피해자의 자신감과 소속감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적 괴롭힘은 성적인 농담이나 몸짓으로 개인을 조롱하여 불편함과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상처를 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비하적 내용을 게시하거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의 범위와 강도를 더욱 확대시킵니다.[16]
- **희롱(harassment)**은 원치 않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협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 말, 몸짓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불편하게 만들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할 수 있습니다. 희롱의 목적 또는 결과는 대상자의 정체성, 인격, 존엄성 또는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침해이며, 또한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모욕적이거나 굴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형태에는 정신적 희롱과 성희롱도 포함됩니다.[17]

13 유네스코. (2018). 저널리즘,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 저널리즘 교육 및 훈련 핸드북 [Journalism, fake news and disinformation – Handbook for Journalism Education and Training], https://webarchive.unesco.org/web/20230930104958/https://en.unesco.org/sites/default/files/journalism_fake_news_disinformation_print_friendly_0_0.pdf

14 전략대화연구소. (2023). 위기 편승 전략: 러시아·중국·이란의 X 플랫폼을 통한 이스라엘-하마스 정보 혼란 악용. [Capitalizing on crisis: Russia, China and Iran use X to exploit Israel-Hamas information chaos], https://www.isdglobal.org/digital_dispatches/capitalising-on-crisis-russia-china-and-iran-use-x-to-e

15 전략대화연구소. (2021). 음모론과 극단주의 사이: 장기적 코로나 위협? [Between Conspiracy and Extremism: A Long Covid Threat?], https://www.isdglobal.org/wp-content/uploads/2021/12/Between-Conspiracy-and-Extremism_A-long-COVID-threat_Introductory-Paper.pdf

16 유네스코. (2019). 수치 그 너머: 학교폭력과 괴롭힘 근절하기 [Behind the numbers: Ending school violence and bullying],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66483/PDF/366483eng.pdf.multi

17 유네스코. (2019). 희롱 금지 정책. [Anti-Harassment Policy],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58969

디지털 공간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혐오표현의 확산은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민주적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는 우려스러운 흐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정치적 폭력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키고, 소외감, 급진화, 극단주의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혐오표현의 발생 요인

혐오표현의 확산에는 다양한 동기가 작용합니다. 혐오에 기반한 서사는 지역적·국가적·세계적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권력, 배제, 다양한 정체성 집단에 대한 차별과 같은 현대 사회의 역학과도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인식은 개인의 자기 정체성보다는 외부의 규정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오표현을 발생시키는 단일한 요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확산을 이끄는 근본적인 역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혐오표현은 다양성, 문화적 차이,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편견과 멸시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학습되는 것이며, 따라서 다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혐오적 수사는 분열적이고 배제하는 서사에 의해 더욱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사는 특히 선거 시기나 정치적 상황에서 정치인, 종교 지도자, 지역사회 지도자, 그리고 주류 언론에 의해 확대되며, 사회를 양극화하고 분열시키고 적대감을 조성하며 특정 집단이나 전체 사회에 두려움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교육자는 이러한 서사를 혐오표현의 사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을 혐오와 그 정당화로 내모는 배출 요인(push factors)과 혐오표현을 통해 의미나 소속감을 얻게 하여 개인을 끌어당기는 흡인 요인(pull factors)등 서로 연결된 다양한 요인과 조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해 줄 서사를 찾는 과정에서 정서적 공백을 채워 줄 수 있는 혐오 기반 서사에 끌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정체성을 탐색하는 발달 단계에 있으며,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행동과 참여 자체에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음에 제시된 배출 요인과 흡인 요인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학습자들이 혐오 기반 서사에 끌릴 수 있는 요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서사는 더 심각한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출 요인

- 실재하거나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불평등, 주변화, 불만, 사회적 배제, 좌절감, 피해의식 및 불의
- 경제적 불확실성, 실업, 빈곤, 교육 기회의 부족
- 희망의 결핍,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삶의 의미와 목적 결여

흡인 요인

- 고정관념, 차별, 인종주의, 성차별, 비인간화된 표현에 대한 노출
- 혐오를 조장하는 집단과의 친밀감, 공동체 의식, 수용, 소속감
- 권한 부여에 대한 기대, 모험에 대한 동경, 삶의 목적 의식, 미래에 대한 희망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불평등과 불공정, 그리고 불의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문화적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혐오표현 대응 전략은 깊이 뿌리내린 편견에 도전하는 활동과 함께, 미디어와 정치적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교육적 접근을 포함해야 합니다.

혐오표현의 징후와 신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음모론 허위정보, 괴롭힘, 불관용과 같은 관련 현상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혐오표현이 얼마나 은밀하게 확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혐오표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특히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코드와 신호, 미묘한 표현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혐오표현은 지배적인 서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쉽게 식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자가 혐오표현의 징후와 신호를 인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혐오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혐오표현의 대표적인 징후와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비하적 언어 사용:** 인종, 종교, 민족, 성별, 성적 지향 또는 그 밖의 보호되는 특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공격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b. **고정관념화:**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하고 지속시키는 일반화된 판단이나 가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c. **폭력 선동:** 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한 폭력, 피해 또는 차별을 조장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d. **비인간화:** 특정 집단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묘사하거나 표현하여 그들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성의 부정은 공감과 연민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 **불관용:** 다른 신념, 배경, 또는 정체성을 가진 개인이나 공동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f. **온라인 희롱:**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근거로 반복적이고 표적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격적 행위를 의미하며, 협박, 위협, 괴롭힘 등이 포함됩니다.

g. **혐오 상징과 이미지:** 혐오 집단이나 역사적 차별 행위와 관련된 상징, 이미지 또는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h. **배제적 관행:** 특정 집단을 소외시키거나 차별하는 관행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며, 그들의 동등한 권리나 기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i. **비하적 유머:**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농담이나 유머를 사용하여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j. **음모론적 사고:** 특정 공동체를 겨냥하는 음모론적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확산하거나 지지하는 것으로, 흔히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거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8 유럽평의회. (2020). 북마크 – 인권교육을 통한 온라인 혐오표현 대항 매뉴얼 [Bookmarks – A Manual for Combating Hate Speech Online Through Human Rights Education]., https://rm.coe.int/bookmarksen2020-web2/16809e5789.

미묘한 형태의 혐오표현

미묘한 형태의 혐오표현은 편견이나 차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표면적으로는 덜 노골적이지만 그 해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교육자는 인식을 높이고 열린 대화를 촉진하며 모든 학습자가 존중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받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러한 미묘한 표현들을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묘한 형태의 혐오표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19]

a. **미세공격(microaggressions):**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적 태도를 드러내는 미묘하고 흔히 의도되지 않은 발언이나 행동

b. **암호화된 언어:** 노골적 표현 없이도 편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차별적 의미가 숨겨져있는 우회적이거나 암호화된 표현의 사용

c. **고정관념화:**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암묵적으로 재생산하며, 일반화와 지나치게 단순화된 가정을 통해 편향된 믿음을 강화하는 것.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의도 없이 고정관념을 반복하는 일상적 고정관념도 이에 포함됨

d. **뒤틀린 칭찬:** 칭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모욕적 의미나 고정관념을 포함하고 있어 상대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표현

e. **배제적 농담이나 유머:**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농담을 하거나 유머를 사용하여 겉으로는 가벼운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f. **선택적 무시:** 특정 집단의 경험이나 문제제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축소하여 그들의 관점이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g. **이중 잣대:** 개인의 정체성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나 기대를 적용함으로써 차별적 관행을 은근히 강화하는 것

h. **미묘한 배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사회적 활동이나 대화에서 배제하여 고립감과 소외감을 조성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혐오표현 확산에서 기술의 역할

교육자는 학습자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혐오표현을 논의하고 대응할 때도 기술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은 본질적으로 오프라인 혐오표현과 다른 것은 아니지만, 기술은 그 확산 방식과 대응 방식 모두에서 복잡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많은 학습자들은 이미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표현이나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으며, 피해자, 소비자, 생산자, 가해자 또는 확산자 등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게임 플랫폼, 밈 공유 사이트, 영상 기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청소년 중심의 온라인 환경에서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현상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방식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반응·댓글·공유를 많이 유도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합니다. 그 결과 혐오 콘텐츠는 빠르게 확산되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19 유네스코. (2023). 혐오표현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https://www.unesco.org/en/countering-hate-speech/need-know.

20 쾰른대학교. (2022). 미세공격, https://vielfalt.uni-koeln.de/en/anti-discrimination/glossary-discrimination-anti-racism/microagressions

2018년 페이스북에 관한 한 분석에서 전략대화연구소는 소수의 매우 활발한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극우 극단주의 콘텐츠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극우 활동가들이 정교한 전략을 활용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디지털 플랫폼 전반에서 혐오 캠페인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21]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은 이미지, 영상, 밈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생성하고 확산하는 능력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형식의 확장은 혐오표현을 보다 창의적이고 유머러스하며 개인화된, 설득력과 영향력 있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여론에 대한 파급력을 증폭시킵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고도로 사실적인 영상, 이미지, 음성으로, 오정보의 가장 최신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사람이나 사건을 왜곡하여 실제처럼 보이게 만들며, 대중이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고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2] 생성형 인공지능은 2023년 아르헨티나 총선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최초의 인공지능 선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은 주요 정치 세력들이 후보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촉진하는 급속한 콘텐츠 확산은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에 상당한 도전을 제기합니다.[23]

혐오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온라인 공동체 내에서 정상적인 현상처럼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콘텐츠 조정 알고리즘, 신고 시스템, 디지털 문해력과 책임 있는 온라인 행동 촉진을 위한 교육자료처럼, 기술은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도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혐오표현에 대응하고 평화를 증진하려는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유럽연합의 '평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프로젝트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혐오표현 대응 및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에 활용한 좋은 사례입니다.)[24]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혐오표현을 탐지하고 조정하는 과정에는 윤리적·기술적 과제가 존재하지만, 향후 인공지능 기술은 혐오표현 대응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도구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분석하여 혐오표현의 패턴을 탐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이용자는 이러한 기술에 내재된 한계와 편향성도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혐오표현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언어적 뉘앙스, 문화적 맥락,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표현 방식 등을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이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할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과제입니다.

21 전략대화연구소. (2018). 버튼 하나로 혐오를: 극우 트롤 공장과 온라인 조직적 혐오 캠페인 생태계 [Hass auf Knopfdruck — Rechtsextreme Trollfabriken und das Ökosystem koordinierter Hasskampagnen im Netz], https://www.isdglobal.org/wp-content/uploads/2018/07/ISD_Ich_Bin_Hier_2.pdf

22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journals.sagepub.com/doi/10.1177/09732586241277335

23 전략대화연구소. (2024). 비방, 조롱, 허위정보 — 생성형 AI 시대의 정치적 소통과 미디어 신뢰 [Vilify, ridicule, disinform — Political communication and media trust in the age of generative AI], https://www.isdglobal.org/wp-content/uploads/2024/03/Political-Communication-and-Media-Trust-in-the-Age-of-Generative-AI.pdf

24 평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프로젝트의 결과 보기: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6777.

2. 실천 영역: 실천 방안, 활동 및 자료

2장은 교육자가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상호 존중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혐오표현의 광범위한 확산과 그 영향, 디지털 위협에 대한 인식은 학습자의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이를 위해 교육자는 먼저 혐오표현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정서적·심리적 피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장은 혐오표현의 식별과 예방·개입 전략, 디지털 문해력, 윤리적 고려를 포괄하는 총체적 접근을 바탕으로, **교육자가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실천 방안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혐오표현에서 기술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조명하며, 디지털 공간에서 혐오표현이 지속되는 양상도 다룹니다. 2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혐오표현을 식별하는 법에 대해 다루는 한편, 모든 학습자가 존중받고 소중한 존재로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도구를 교육자에게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혐오표현 사안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 방식의 명확한 개입 전략을 제시하며, 교육자들이 세계시민교육의 원칙에 입각하여 온라인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증진하도록 권고합니다. 본 핸드북은 비판적 사고와 다양성·포용성·상호존중적 소통의 증진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핸드북에서 소개되는 실천 방안과 활동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명시적 정책 기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교육자의 역할은 포괄적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는 옹호 활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반차별·반괴롭힘 조치를 통합하여 교육과정에서 교육자 훈련 및 전문성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교육 문화의 변혁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일례로, 독일의 드레스덴과 쾰른은 유럽 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종차별 대응 방안으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유럽도시연합(ECCAR)'의 10대 행동계획을 도입하였습니다.[25] 베를린을 거점으로 차별 대응을 위한 학교용 지침을 개발하여[26] 각 학교가 자체적인 반차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케냐의 국가결속통합위원회(NCIC)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케냐 교육기관 내 아마니(Amani) 클럽을 설립하였습니다.[27] 2008년 국가결속통합법에 의해 설립된 NCIC는 '국가 정체성 및 가치 증진, 민족·정치적 경쟁 및 민족 혐오 폭력 완화,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차별 철폐, 국가 화해 및 치유 증진'을 사명으로 합니다.[28]

주: 이 핸드북의 일부 활동은 학습자에게 심리적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정서적 고통이 아닌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는 유네스코 마하트마 간디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의 디지털 자료[29]를 참고하여 간단한 사회정서 학습 활동을 각 모듈에 접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호흡 훈련, 마음챙김, 일기쓰기 등의 짧은 활동을 모듈의 시작, 중간, 또는 마무리 단계에 활용하면 학습자가 정서적 어려움 없이 안정된 상태에서 학습에 임할 수 있습니다.

25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migrant-integration.ec.europa.eu/integration-practice/european-coalition-cities-against-racismeccar_en

26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adas-berlin.de/wp-content/uploads/2018/07/ADAS_Schutz-vor-Diskriminierung-Schulen.pdf

27 아마니 클럽 개요, https://cohesion.go.ke/amaniclubs/index.php/about-us/amani-clubs-brief.

28 한눈에 보는 NCIC, https://www.cohesion.go.ke/index.php/about-us/who-are-we.

29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webarchive.unesco.org/web/20240108233301/https://mgiep.unesco.org/all-course

에모리 대학교 명상과학·연민기반윤리센터의 씨러닝(SEE Learning) 프로그램은 이와 관련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30] 유네스코 마하트마 간디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의 「교육 시스템을 위한 사회정서학습 검토보고서」[31] (236페이지부터)에는 아동 친화적 교수법부터 모바일 앱·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마하트마 간디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의 사회정서학습 블로그[32]에서는 공식·비공식 학습 환경에서 오프라인 및 디지털 사회정서학습 활동을 통합하는 다양한 방법에 관한 유용한 게시물을 제공합니다. 미시간 대학교 학습·교수연구센터(CRLT) 또한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교육자를 위한 실용적인 안내서[33]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행 영역 1: 교실 안팎에서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문화 구축하기

긍정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포용적이고 혐오에 흔들리지 않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개인을 폄하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열린 문화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문화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중에 기반한 의사소통 규범을 정립하고 학습자가 학급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학습자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학부모·보호자, 그리고 더 넓은 지역사회 구성원들 역시 존중과 포용의 가치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학교에서의 노력이 학습자의 삶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천 방안

a. **학급 규칙을 함께 만듭니다.** 학습 공간의 규칙, 가치, 모토, 규범 등 지침이 되는 원칙들을 학습자와 함께 만들어 나갈 때, 학습자는 그 가치를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b. **명확한 기대 기준을 설정합니다.** 학기 초부터 행동에 관한 기대 기준을 명확하게 전달하십시오. 여기에는 학업 기준, 소통 규칙, 학급 운영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 **환영받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학습 공간이 따뜻하고 잘 정돈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학습자의 작품이나 결과물로 공간을 꾸며 주인의식과 소속감을 높이십시오.

d.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학습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관계를 쌓으십시오. 학습자의 삶, 경험, 웰빙에 진심 어린 관심을 기울이고, 일대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세요.

e. **포용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고정관념을 피하고 성 중립적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30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seelearning.emory.edu/en/resources

31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3890?posInSet=1&queryId=57aab792-3e23-468d-811a-432e52dca9f3

32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webarchive.unesco.org/web/20240614025651/https://mgiep.unesco.org/sel-for-everyone

33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crlt.umich.edu/tstrategies/tshctd

- **포용적 언어 사용 예시:** 교육자가 학습자들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학급 전체를 지칭할 때 영어의 'guys'처럼 특정 성별을 연상시키는 표현 대신, '우리 반, 잠깐 모여 볼까요?'와 같이 보다 포용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학습자가 집단 안에서 포용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포용적 언어는 성별을 넘어 민족, 연령, 능력, 그 밖의 다양한 정체성 요소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모든 구성원이 배려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f. 협력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학습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둠활동과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팀워크와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g. 성장 마인드셋을 장려합니다. 학업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 모두에 걸쳐 강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균형 있게 짚어주는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십시오.

h. 학습자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학습자의 웰빙을 파악하고 이들의 염려에 귀 기울이십시오. 비공식적인 대화나 더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i. 학습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합니다. 학습자가 자신의 의견, 생각, 선호를 표현할 기회를 마련하십시오. 적절한 경우, 학습자의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십시오.

j. 지역사회와의 연계 전략을 수립합니다. 학부모와 보호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참여 없이는 혐오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고 포용적인 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계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 정의를 위한 배움과 관용수업: 학급 활동 자료 | Learning for Justice
  https://archive.learningforjustice.org/classroom-resources/lessons?keyword=&sort_by=search_api_relevance&page=6
- 에듀케이션 스코틀랜드는 학급 운영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Education Scotland: https://education.gov.scot/
- 유네스코와 마하트마 간디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의 #청소년이 만드는 평화 - 청소년 주도의 교육을 통한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안내서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0547
- 인터넷 시민 되기 - 전략대화연구소의 청소년 디지털 시민 기능 강화 프로그램 (isdglobal.org)
  https://www.isdglobal.org/be-internet-citizens/

상호 존중의 소통 원칙 세우기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교실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소통의 기본 원칙을 함께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호존중적 소통을 촉진하는 기본 원칙에는 경청하기, 다양한 관점 인정하기, 인신공격 삼가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삼가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누구나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보다 포용적이며 협력적인 의견 나눔이 가능해집니다.

대상 학습자
› 초등 고학년 및 중등

연관 과목
› 모든 과목

준비물
› 공책, 포스트잇, 카드, 사인펜

소요 시간
› 1시간

학습 목표

이 활동은 학습자들이 존중하는 소통을 위한 기본 원칙을 함께 정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창의성을 키우고, 합의된 원칙을 지켜 나가려는 공동의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진행 방법

a. **분위기 조성하기(5분):** 언어가 모든 구성원의 웰빙과 학습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십시오. 긍정적인 소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호존중적 소통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누세요.

b. **모둠별 브레인스토밍(15분):** 학급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경청과 공감 등 존중하는 소통의 핵심 요소를 브레인스토밍하도록 합니다. 각 모둠에 종이 또는 디지털 화이트보드를 제공합니다.

c. **소통 원칙 만들기(15분):** 각 모둠은 앞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원칙은 간결하고 실천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도록 안내해주세요. 예: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경청하고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d. **원칙 포스터 만들기(15분):** 각 모둠은 자신들의 소통 원칙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세요. 완성된 포스터는 학습 공간에 게시하여 학습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e. **공동 원칙 마련하기(15분):** 전체 학급을 다시 모아 각 포스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제와 원칙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학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급 토의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상호 존중의 소통 원칙을 완성합니다.

추가 제안

완성된 소통 원칙은 문서로 정리해 출력한 뒤, 학습 공간의 잘 보이는 곳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남는다면, 학습자들이 함께 포스터를 만들어 소통 원칙을 창의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학습자가 포용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자와 교육자는 더 넓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할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맥락과 문화에 맞는 실현 가능한 전략들을 선택함으로써, 학습자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직접 경험하는 동시에 구조적 변화에 기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혐오표현에 맞서는 공동의 대응을 위해 학부모·보호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열린 소통과 공동의 책임을 바탕으로, 교육자들은 학습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굳건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상 학습자
› 초등 고학년 및 중등

연관 과목
› 모든 과목

준비물
› 노트, 포스트잇, 카드, 사인펜

소요 시간
› 1시간

학습 목표

다양성과 포용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진행 방법

a. **모둠 브레인스토밍(10분):** 학급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과 기회들이 무엇인지 브레인스토밍하도록 하세요. 각 모둠에 종이 또는 디지털 화이트보드를 제공합니다.

b. **방법 선택하기(15분):** 아래에 제시된 지역사회와 협력하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앞선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바탕으로, 각 모둠이 자신들의 맥락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법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c. **방법 발표하기(15분):** 각 모둠이 선택한 세 가지 방법과 선택 이유를 발표하도록 합니다.

d. **투표하기(5분):** 모든 학습자가 손을 들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세 가지에 개별적으로 투표하도록 합니다.

e. **방법 구체화하기(15분):**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세 가지 방법에 대해, 교육자는 학습자들에게 해당 방법을 언제,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를 논의하도록 합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기 위한 방법

a. **열린 소통 창구 마련하기:** 보호자 및 지역사회와의 명확한 소통 채널을 마련합니다. 뉴스레터, 이메일,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혐오표현 대응과 관련된 활동, 수업, 추진 사항 등을 공유합니다.

b. **학부모·보호자-교육자 간담회 운영하기:** 교육과정, 학급 문화, 혐오표현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구체적인 방법 등을 논의하는 정기적인 학부모 보호자-교육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우려 사항이나 질문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열린 대화를 장려하세요.

c. **워크숍 및 설명회 운영하기:** 혐오표현 인식 제고와 예방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나 설명회를 마련합니다. 학부모·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련 지식과 방법을 나눠보세요.

d. **협력 프로젝트 운영하기:** 학습자와 학부모·보호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혐오표현의 영향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공동 과제, 발표, 행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 **지역사회 포럼 개최하기:** 혐오표현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지역사회 포럼이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초청 연사, 지역사회 지도자, 전문가를 초대하여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나눠보세요.

f. **정책 수립에 학부모 보호자의 참여 확대하기:** 혐오표현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학부모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의견과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g. **자료 공유하기:** 혐오표현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 도서, 온라인 자료 등을 학부모·보호자 및 지역사회와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논의가 학습 공간을 넘어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h.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하기:** 관용을 증진하고 혐오표현 근절에 초점을 맞춘 지역 단체, 공동체 모임, 옹호 단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합니다. 학습 공간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i. **익명 신고 체계 마련하기:** 학습자와 학부모·보호자가 혐오표현 사안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신고 내용은 민감하게 다루어지며 비밀이 보장됨을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립니다.

j. **자원봉사 참여 기회 마련하기:** 학부모·보호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혐오표현 대응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참여는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 의식을 높이고, 모든 학습자의 웰빙에 대한 관심과 헌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k. **지역사회 구성원을 우호적 지지자로 세우기:** 학부모·보호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혐오표현 대응에 적극적인 지지자로 나설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합니다. 젊은이들이 다양성과 관용에 관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이를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l. **피드백 체계 마련하기:** 학부모·보호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부터 현행 전략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피드백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게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세계시민교육: 아시아태평양 지역 학부모·지역사회·학습자를 위한 핸드북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8130

실행 영역 2: 문화 간 이해 역량 기르기

사회정서학습의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문화 간 이해 역량은 학습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공감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문화 간 이해 역량은 한 사회 안에서든 국경을 넘어서는 관계 속에서든, 민족, 인종, 성별, 종교 등의 차이를 넘어 타인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 기술, 태도의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경청, 공감, 열린 마음, 비판적 사고, 다양성 존중, 문화적 자기인식 등이 포함됩니다.[34]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과 긍정적 강화의 기회 또한 필요합니다. 관용과 공감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고 포용적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교육자는 학습자가 존중과 호기심을 가지고 다원적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돕습니다. 교육자와 학습자는 공감을 우선시하여,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타인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타인의 의도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삼가야 합니다. 문화 간 이해 역량은 풍요롭고 다양하며 상호 연결된 세계 공동체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 내는 데 기여합니다.

실천 방안

a. 공감하는 태도를 길러줍니다. 공감을 강조하는 활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연계하는 것은 혐오에 대응하고 긍정적인 관계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b. 감정 조절 능력을 길러줍니다. 마음챙김과 자기이해를 포함하여 학습자가 고조된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기법을 가르치고,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과 회복탄력성을 기르도록 지원합니다.

c. 문화 간 이해 역량을 몸소 보여줍니다. 열린 태도를 장려하고 다양한 배경에 대해 배우려는 의지를 갖추는 것은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자는 선입견 없이 진정한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에 다가가야 합니다.

d. 대화 역량을 개발합니다.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한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쌓으며 경청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e. 학습 환경 안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 **차이 존중하기:** 학습 공간에서 다양한 배경의 문화 행사와 기념일을 공유합니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전통, 음식, 미술 작품, 풍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 **교육과정 다양화하기:** 다양한 관점, 저자, 문화를 교육과정에 통합합니다. 폭넓은 사람들의 경험을 반영하여 다양한 지역과 공동체의 문학, 역사, 과학을 포함시킵니다.
- **환경 미화에 다양성 반영하기:** 다양성을 담은 포스터, 미술 작품, 자료를 게시합니다. 장식물에 다양한 민족, 성별, 능력, 가족 형태를 반영합니다.
- **다양한 도서 및 자료 구비하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도서로 포용적인 학급 도서관을 구성합니다.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담은 멀티미디어 자료도 구비하십시오.

34 유네스코. (2013). 「문화 간 이해 역량: 개념적·실천적 틀」. 파리: 유네스코.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19768/PDF/219768eng.pdf.multi

- **초청 연사와 롤모델 초대하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사를 초청하여 그들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나눕니다.다양한 분야의 롤모델을 소개하여 학습자에게 영감을 주고 성공에 대한 시각을 넓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구성원이나 학부모·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 **상호작용 촉진하기:** 학습 공간의 좌석을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협력 학습과 모둠활동을 통해 소통과 상호 이해를 촉진합니다.
- **다양성 위원회 또는 동아리 운영하기:** 학습 공간 내에 다양성 위원회나 동아리를 구성하여 학습자들이 다양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를 통해 학습자가 포용성 증진에 능동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f. **편견과 고정관념을 다룹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에 관한 토론을 수업에 포함시킵니다. 학습자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편견을 인식하며,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가르쳐 보다 포용적인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추가 자료

- 자비와 진정성 훈련 매뉴얼[Compassionate Integrity Training Manual]: https://oercommons.s3.amazonaws.com/media/courseware/relatedresource/file/CIT_Participant_Manual_Final_46VxJh4.pdf?ResponseContentDisposition=attachment%3Bfilename%3D%22CIT_Participant_Manual_Final_46VxJh4.pdf%22

무지의 장막

대상 학습자
› 초등 고학년 및 중등

연관 과목
› 모든 과목

준비물
› 공책, 포스트잇, 카드, 사인펜 또는 준비물 없음

소요 시간
› 60-90분

학습 목표

개인과 사회 간 공정성의 개념을 탐구함으로써 공감 및 자기 성찰 능력을 함양합니다.

아래에 소개된 활동 및 이와 유사한 다른 활동들은 철학자 존 롤스와 그의 정의론에서 비롯된 사고실험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과 편견을 넘어 생각하게 해 줄 사고 실험에 학습자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 활동은 공감, 공정성,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 **사고실험 소개하기(10분):** '무지의 장막' 개념과 목적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이어서 사고 실험을 위한 맥락을 제시합니다.[35]

b. **사고실험 진행하기(15분):**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를 설계한다고 상상해 보도록 합니다. 어떤 원칙과 구조를 우선시할 것인지 개별적으로 생각해 볼 시간을 제공합니다.

c. **소그룹 토론하기(20분):** 학습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자의 생각을 나누게 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고 공통된 가치를 함께 도출하도록 독려합니다.

d. **전체 토론하기(15분):** 학습자들을 다시 모아 전체 토론을 진행합니다. 활동을 통해 느낀 어려움, 타협의 과정, 그리고 얻은 통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 **마무리 및 성찰하기(10분):** 학습자들이 배운 내용을 개별적으로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현실 세계의 적용 사례와 연결해 줍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대학 모듈 시리즈에서 존 롤스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한 역할극 활동(연습 3: 화성 탐험)을 제공합니다. 이 활동은 다양한 교육 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위에 소개된 활동을 실행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실성·윤리 모듈 3 연습 활동 (unodc.org)[36]

35 무지의 장막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ethicsunwrapped.utexas.edu/glossary/veil-of-ignorance

36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www.unodc.org/e4j/en/integrity-ethics/module-3/exercises.html



공감 서클

대상 학습자
› 초등 고학년 및 중등

연관 과목
› 모든 과목

준비물
› 부드러운 공

소요 시간
› 30분

학습 목표

경청 및 학습자 간 유대 형성을 통해 공감 능력을 키웁니다.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교육자는 학습 공간의 의자를 원형으로 배치하거나, 둥글게 앉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하고, 발언 기회를 부여하는 물건(예: 부드러운 공이나 작은 소품)을 준비합니다.

진행 방법

a. **활동 전 준비:** 활동에 앞서 상호 존중의 소통 원칙을 먼저 정하고, 판단 없이 경청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말할 때는 "나는 …"으로 시작하는 표현('I' 메시지)을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b. **1단계:** 공감 서클을 시작하며, 한 학습자가 발언 도구를 들고 선택된 주제나 질문(예: "가장 최근에 어려움을 겪은 때는 언제였나요?")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 감정, 또는 생각을 나누도록 합니다. 서클의 나머지 참여자들은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합니다.

c. **2단계:** 첫 번째 학습자가 나눔을 마치면 발언 도구를 다음 학습자에게 전달합니다. 다음 학습자는 앞서 나눈 내용을 되돌아보며 공감을 표현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이야기하거나 후속 질문을 합니다. 서클의 모든 학습자가 참여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d. **되돌아보기:** 활동 경험뿐만 아니라 참여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도록 토론을 이끕니다.

e. 이 활동은 학습 집단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학급이 함께 공감 서클을 진행하는 대신, 짝 활동이나 소그룹 활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며, 특정 주제나 과제에 초점을 맞춘 서클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 자료

사회적 공감 활성화(ASE) 프로그램
https://www.universityofgalway.ie/media/unescochildandfamilyresearchcentre/2023/Activiting-Social-Empathy-SPHE-Resource.pdf
유네스코가 개발한 이 12주 공감 훈련 프로그램은 (1) 공감 이해하기, (2) 공감 실천하기, (3) 공감의 장벽 극복하기, (4) 공감을 행동으로 옮기기의 네 가지 핵심 학습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37]

유네스코 마하트마 간디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사회정서학습 자료
https://d1c337161ud3pr.cloudfront.net/files%2F4c908f6e-80b6-42fc-8a06-16d0f6c7a107_Course%20brochure%20in%20%207x9.pdf

공감 서클 활동 진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감 서클 웹사이트
https://www.empathycircle.com/

37 Dolan, P., Silke, C., Davitt, E., Flynn, N. & Murray, C. 사회적 공감 활성화하기: 중학교용 자료 [Activating Social Empathy: Junior Cycle Resource]. 골웨이. 골웨이대학교 유네스코 아동가족연구센터. Boylan & Dolan (2019) 원문을 바탕으로 변경함. ASE 교육자 매뉴얼 [ASE Educator Manual]. 링크: https://www.universityofgalway.ie/media/unescochildandfamilyresearchcentre/2023/Activiting-Social-Empathy-SPHE-Resource.pdf



스토리 서클

대상 학습자
› 초등 고학년 및 중등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적용 완료)

연관 과목
› 모든 과목

준비물
› 공책, 포스트잇, 카드, 사인펜 또는 준비물 없음

소요 시간
› 1.5-2시간

학습 목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문화 간 이해 역량을 개발합니다.

스토리 서클은 문화 간 이해 역량을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로 설계되었으며, 체계적이면서도 다양한 맥락에 맞춰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전 세계 여러 환경에서, 정규 교육과정 안팎의 다양한 집단과 함께, 별도의 자원 없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문화 간 이해와 소통에 관한 깊은 지식이나 이론적 배경이 없는 사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

a. **스토리 서클의 목적 정하기.** 예를 들어, 교육적 맥락과 환경에서 혐오발언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문화 간 이해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b. 설정된 목적에 스토리 서클 과정이 **적합한지 평가하기.**

c. **문화 간 이해 역량 개발에 관심 있는 참여자 모집하기.** 가능한 한 다양한 관점(성별, 연령, 종교, 문화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성이 높을수록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수에 따라 적절한 수의 소그룹 또는 서클로 나눌 수 있으며, 주어진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핵심 활동에서 각 그룹은 3명에서 7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d. 스토리 서클에서 사용할 **언어 결정하기.** 이상적으로는 모든 참여자가 가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며, 따라서 일부 참여자에게는 모국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참여자는 공용어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통역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e. **진행자 또는 공동 진행자를 선정하기.** 진행자는 존중하는 대화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유지하고, 참여자를 환영하며, 과정을 안내하고, 마지막 토론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단계에서는 그룹 내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진행자나 공동 진행자는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진행자의 역할은 전체 그룹에 활동을 소개하고 기본 원칙을 안내한 뒤, 참여자를 소그룹으로 나누어 실제 이야기 나누기를 진행하도록 하며, 소그룹 활동이 끝난 후 전체 그룹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및 공동 진행자는 소그룹 활동 중 질문에 답하거나 참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공유되는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아야 합니다.

f. **스토리 서클을 진행할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장소 선택하기.** 장소는 작은 원형으로 의자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원 안에 테이블 같은 가구나 벽이 없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참여자들이 바닥에 앉거나 원형으로 서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g. **학습자 초대하기.** 초대장에는 활동의 목적, 주제, 과정의 성격(예: 이해를 위한 경청의 중요성, 다른 참여자 존중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참여 동의와 그에 따른 책임감 확인을 위해 중요합니다. 초대장에는 이 활동이 혐오표현 및 관련 해로운 표현이 없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습 공간을 만들기 위한 문화 간 이해 역량 개발의 기회임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리 서클 활동의 이름은 '워크숍'이나 '훈련'이 아닌 '경험'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한 용어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h. **활동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적절한 도입과 마무리 계획하기.** 개방적이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낭독, 심호흡 활동, 음악 등을 포함할 수 있음), 경험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구분하며, 모든 참여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i. **서클 중앙에 상징적인 장식물**(예: 꽃)을 놓을지, 그리고 활동 시작이나 끝에 음식을 제공할지 결정합니다.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문화적 음식을 가져오도록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클에서 '발언 도구'를 사용할지 여부도 결정합니다. 발언 도구를 사용할 경우, 모든 참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물건을 준비합니다. '발언 도구'란 이야기하는 사람이 들고 있다가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물건으로, 이를 통해 해당 물건을 가진 사람만 말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방해 없이 경청하도록 하며, 참가자가 시간 제한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j. **학습자들과 함께 사용할 질문을 공동으로 만들고 선택하기.** 첫 번째 단계를 위한 '서로 알아가기' 질문 한 묶음, 두 번째 단계를 위한 '문화 간 이해' 관련 질문 한 묶음이 필요합니다.질문들은 스토리 서클이 추구하는 문화 간 이해라는 목표와 함께 해당 맥락 및 참여자에게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더 많은 안내와 예시는 「문화 간 이해 역량 개발 매뉴얼: 스토리 서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 스토리 서클이 끝난 후 사용할 **마무리 질문**을 미리 정하고, 전체 그룹의 성찰 및 토론을 진행할 준비를 합니다.

l. 일찍 도착해 활동 공간을 필요에 맞게 적절히 마련합니다.

추가 활동

다음 활동들은 교실에서 문화 간 이해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혐오표현 문제를 겪고 있는 교육자들을 지원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a.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면 학습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 전통, 경험을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b. 교육자(및 학습자)는 혐오표현이 포함된 상황을 가상으로 재현하는 **역할극 시나리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자(및 학습자 모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화를 촉진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c. 혐오표현이 효과적으로 다루어진 **문화 간 이해 활동에 관한 실제 사례**를 연구하고 조사하면 유사한 문제를 겪는 교육자들에게 통찰과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들 역시 혐오표현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료 간의 열린 대화**를 장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d. **다양한 작가, 관점, 문화의 문학작품**을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학습자들이 다양한 배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 자료

- 문화 간 이해 역량 개발 매뉴얼 | 스토리 서클: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0336
- 유네스코 스토리 서클 방법론을 통한 문화 간 이해 역량 개발:
  https://iccglobal.org/developing-intercultural-competencies-through-story-circles/
- 인종차별 및 차별에 반대하는 마스터 클래스 시리즈 | 유네스코:
  https://www.unesco.org/en/no-racism-no-discrimination/masterclass
- 유네스코 인종차별 및 차별 대항 마스터 클래스 시리즈는 젊은이들이 인종차별, 차별, 혐오표현에 맞설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역동적인 플랫폼입니다. 평등과 인권에 대한 유네스코의 헌신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편견에 맞서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도구를 제공합니다. 참여자들은 참여형 학습과 대화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근원과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에서 불관용에 대응하는 전략을 개발합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청년 리더십을 위한 촉매제로서, 연대, 회복력, 인간 존엄성을 증진하는 변화의 주체로 청년들을 이끕니다.



비판적 대화 카페

대상 학습자
› 초등 고학년 및 중등

연관 과목
› 모든 과목

준비물
› 공책, 포스트잇, 카드, 화이트보드, 사인펜

소요 시간
› 2시간

학습 목표

복잡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에 학습자들을 참여시키고, 공감 능력을 키우며, 다양한 관점을 탐색해 보도록 합니다. 진행자는 글로벌 이슈(예: 기후 변화, 이주, 인권 등)가 적힌 주제 카드, 핵심 내용을 기록할 큰 종이, 그리고 타이머나 스톱워치를 준비합니다.

진행 방법

a. **주제 선택(20분):** 세계의 상호 연결성과 세계시민으로서 개인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각 학습자 또는 모둠에 글로벌 이슈가 적힌 주제 카드를 나누어 줍니다. 학습자들이 자신이 흥미를 느끼거나 도전적으로 느끼는 주제를 선택하도록 장려합니다. 주제는 폭넓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b. **비판적 대화(60분):** 학급을 소규모 토론 모둠으로 나누고, 각 모둠에 서로 다른 글로벌 이슈를 배정합니다. 각 대화 단계마다 15~20분씩 진행되도록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설정된 시간 동안 학습자들은 비판적 대화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점을 나누고, 질문을 던지며, 각자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접할 수 있도록 모둠 간에 주제 카드를 바꿉니다.

c. **핵심내용 기록(15분):** 각 모둠이 배정된 주제를 토론하는 동안, 전체 학급이 볼 수 있는 큰 종이나 화이트보드에 핵심 내용과 통찰을 기록합니다. 이는 글로벌 이슈의 다면적인 성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습자들이 주제를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돕는 질문

- 당신의 선입견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방해가 될 수 있나요?
- 이 토론에서 누구의 관점이 반영되지 않았나요?
- 특정 결정이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 미처 고려하지 못한 대안적 해결책이나 관점이 있나요?
-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나요?
- 이 주제는 더 넓은 사회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적 요인이 이 상황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까요?

d. **성찰 및 종합(30분):** 소그룹 토론이 끝난 후, 학급 전체가 모여 활동을 되돌아봅니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고 여러 글로벌 이슈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적 주제, 차이점,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고려사항들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e. **전시 관람 및 피드백(20분):** 각 토론 모둠의 핵심 내용을 교실 곳곳에 전시장 형태로 배치합니다. 학습자들은 순서대로 전시를 둘러보며 각 전시장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전시된 자료에 의견, 질문, 또는 추가적인 통찰을 덧붙이도록 장려합니다.

f. **정리 및 마무리(15분):** 정리 세션으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비판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의 어려움과 장점을 논의합니다. 분별력 있고 능동적인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비판적 사고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추가 자료

- 씽큐(ThinQ)
  https://www.thinq.education
- 비판적 사고를 위한 재단(Foundation for Critical Thinking)
  https://www.criticalthinking.org/

실행 영역 3: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 역량 기르기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기르는 일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와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평가하며,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생산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38]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민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디지털 시민성이란 '효과적인 소통과 창작 능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긍정적이고 비판적이며 유능하게 참여하고, 기술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통해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 참여 방식을 실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39] 교육을 통해 디지털 및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갖춘 시민으로 성장한 학습자들은 디지털 정보 환경을 안전하게 탐색하고, 긍정적이고 윤리적인 온라인 참여를 보장하며, 무엇보다도 디지털 공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실천 방안

a.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및 정당한 한계를 이해합니다.

b.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합니다.** 초기 수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인식, 사이버 괴롭힘 예방, 긍정적인 온라인 활동, 그리고 디지털 행동이 현실에 미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c. **미디어와 정보 소비 습관에 대한 자기 인식을 돕습니다.** 자신의 미디어 환경과 정보 생태계를 의식하게 되면 학습자들이 자신의 습관을 평가하고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d. **비판적 사고 역량을 적용합니다.** 학습자들이 자신이 어떤 것에 동의하는 이유와 그 의견이나 관점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즉각 반응에 기반한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도록 독려합니다. 학습자들은 항상 '내가 이것에 동의하는 이유가 단지 나의 편견에 잘 들어맞기 때문은 아닌가?', '이 콘텐츠가 사회의 특정 집단을 불필요하게 고정관념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는 혐오표현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허위정보와 오정보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e.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보의 출처,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 참여하고 신뢰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행동을 확립하는 것에 관한 대화를 촉진합니다.

f. **디지털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도를 높입니다.** 학습자들이 디지털 환경의 작동 방식과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몰입적으로 변해가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의미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안전하게 활동하고 긍정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역량을 쌓아갑니다.

g. **동료 교육자들과 협력합니다.** 미디어 문해력과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고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교육과정에 통합합니다. 현재의 교육과정, 전문성, 네트워크를 한두 가지 특정 영역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집중합니다.

38 국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 및 역량 프레임워크: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7068

39 유럽평의회. (2017). 디지털 시민성 교육 – 실무 회의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 Working Conference]. https://rm.coe.int/digital-citizenshipeducation-working-conference-empowering-digital-ci/1680745545

온라인 정보 출처 평가하기

대상 학습자
› 초등 고학년 및 중등

연관 과목
› 모든 과목

준비물
› 공책, 포스트잇, 카드, 사인펜

소요 시간
› 15분-1시간

학습 목표

온라인 정보 및 뉴스의 출처를 평가합니다.

진행 방법

a. 다음은 학습자들이 뉴스 정보 출처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성찰하도록 돕는 질문입니다:

- 뉴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의견입니까?
- 이 뉴스 출처가 언론 매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지 않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 저널리즘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 뉴스 정보 출처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b. 다음은 「MIL티버스와 함께하는 여행: 청소년 단체를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도구」에 소개된, 출처를 확인하고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의견입니까?
- 헤드라인을 분석합니다 (선정적이지는 않습니까?)
- 출처를 확인합니다:
  - 해당 뉴스에 추적 가능한 출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즐겨 사용하는 검색창을 활용해 해당 출처에 대한 정보를 검색합니다.
  - 출처의 신뢰성을 검토해 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입니까, 소셜 미디어 게시물입니까, 아니면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입니까?
  - 출처에 대해 '위키백과 붙여 검색하기' 방법을 활용해 위키백과가 해당 출처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신뢰성을 보여주는 단서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일간지인지, 1821년에 창간되었는지, 영국의 '기록지'로 불리는지 등.
- 주장을 확인합니다:
  - 팩트체크하고자 하는 뉴스의 주장을 즐겨 사용하는 검색창에 입력해 찾아봅니다.
  - 또는 주제어를 입력하여 다른 언론사들도 해당 내용을 보도했는지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를 분석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언론사들도 보도하고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팩트체크 기관이 이미 허위정보로 보고한 경우, 검색 결과에 해당 내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 역방향 이미지 검색:
  - 확인하려는 뉴스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구글 역방향 이미지 검색'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원본 출처를 추적합니다.
  - 검색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이미지가 뉴스 내용과 일치하는지, 원래의 맥락에서 벗어나 사용된 것인지, 또는 AI로 생성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c. 다양한 교과목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칩니다.

역사: 학습자들에게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상상하며 그 시대의 사건과 인물에 대해 보도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도록 합니다. 또한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상상하게 하고, 그 집단 정체성이 자신이 아이디어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발표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과학: 학습자들이 새로운 과학적 사건이나 발견에 대해, 해당 정보를 들었을 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도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갈릴레오의 이론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어떤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논란이 되는 주제를 다룰 때 저널리스트나 미디어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고려하도록 합니다.

문학: 학습자들에게 소설 속 인물에 대한 탐사 프로필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해당 인물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에 도전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를 다른 인물들이 제공하는 정보로부터 찾아 보도록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저널리스트가 어떤 출처를 신뢰할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생각해 보게 할 수 있습니다.

d. 디지털 및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설계합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출처의 기사를 찾습니다.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토론하도록 합니다. 이 기사에서 저자의 입장과 의견은 무엇입니까? 저자는 누구입니까? 저자가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저자는 왜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 기사의 정보 표현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이 입장에 한계나 모순이 있습니까? 이 기사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추가 활동/팁

a. 수업에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통합합니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는 추가적인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교육이나 역사, 그 밖의 관련 주제, 교과목, 수업을 관통하는 범교과적 주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b. 토론 기반 학습과 실습 활동을 결합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자들은 표현의 자유권을 포함한 다양한 인권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의 예시와 실제 사례 연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표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대한 찬반 논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특정 상황에서 인권이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지 탐구하도록 장려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주제로,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이용 제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c. 학습자들이 활동과 토론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공감하는 예시와 학습자들이 실제 경험한 사례를 활용합니다.**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일부 사례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d. **학습자들이 효과적인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발휘하도록 합니다.** 후속 수업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허위정보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친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 나선 적이 있습니까? 바람직한 (디지털) 시민성의 사례를 축하하되, 학습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홀로 겪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합니다.

추가자료

-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현명하게 클릭하기! – 유네스코 디지털 도서관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7068
- MIL티버스와 함께하는 여행: 청소년 단체를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도구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92035
- 온라인 강좌: 성인 교육자를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매뉴얼
  https://learninghub.uil.unesco.org/enrol/index.php?id=63
-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온라인 강좌:
  온라인에서 신뢰받는 목소리가 되는 방법
  https://journalismcourses.org/
- 역량 강화 및 옹호를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https://www.gcedonlinecampus.org/_HTML/closed_course_view.php?id=76&returnurl=aHR0cHM6Ly93d3cuZ2NlZG9ubGluZWNhbXB1cy5vcmcvX0hUTUwvY2xvc2VkX2NvdXJzZV9saXN0LnBocD9hcHByb3ZhbF9hdXRvPTEmYW1wO3ZpZXc9Y2FyZA
- 비판적 미디어 문해력
  https://www.gcedonlinecampus.org/_HTML/closed_course_view.php?id=38&returnurl=aHR0cHM6Ly93d3cuZ2NlZG9ubGluZWNhbXB1cy5vcmcvX0hUTUwvY2xvc2VkX2NvdXJzZV9saXN0LnBocD9wYWdlPTImYW1wO2FwcHJvdmFsX2F1dG89MSZhbXA7d mlldz1jYXJk
- 디지털 안전
  https://www.gcedonlinecampus.org/_HTML/closed_course_view.php?id=75&returnurl=aHR0cHM6Ly93d3cuZ2NlZG9ubGluZWNhbXB1cy5vcmcvX0hUTUwvY2xvc2VkX2NvdXJzZV9saXN0LnBocD9hcHByb3ZhbF9hdXRvPTEmYW1wO3ZpZXc9Y2FyZA
- 리뉴스(ReNews) 수업 소책자
  https://www.renews-project.org/wp-content/uploads/2021/02/ReNews-teaching-booklet-V2.pdf
- 교육자를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모듈
  https://www.unesco.org/mil4teachers/en/curriculum
- 유네스코 마하트마 간디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의 YouthWagingPeace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0547

디지털 발자국 분석

대상 학습자
› 초등 고학년 및 중등

연관 과목
› 모든 과목

준비물
› 공책, 포스트잇, 카드, 사인펜

소요 시간
› 1시간 30분

학습 목표

디지털 발자국의 개념과 그것이 개인의 온라인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습자들이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 의식과 온라인 행동에 대해 성찰하도록 장려합니다.

진행 방법

a. **디지털 발자국(15분):**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용어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합니다. 학습자들에게 이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합니다. 학습자들의 답변을 칠판에 정리합니다.

b. **토론(20분):** 모든 클릭, 좋아요, 공유, 게시물이 우리의 디지털 발자국, 즉 모두가 온라인에 남기는 데이터 흔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토론합니다. 학습지를 배포하거나 학습자들이 자신의 디지털 발자국에 대해 개별적으로 돌아보도록 합니다. 현재 자신의 온라인 활동이 어떻게 자신의 디지털 평판을 형성할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디지털 발자국의 사례를 공유하며, 대학 입학, 취업 활동, 개인적 인간관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c. **분석(30분):** 디지털 발자국의 결과에 관한 인쇄된 기사나 사례 연구를 배포합니다. 소그룹으로 나누어 학습자들이 자료를 읽고 분석하며 다양한 온라인 활동의 장기적 영향에 대해 토론하도록 합니다.

d. **그룹 발표(20분):** 각 모둠이 핵심 발견 내용, 교훈, 그리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행동을 위한 권고사항을 강조하며 학급 전체에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e. **성찰(15분):** 성찰 내용을 바탕으로 학급 토론을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설정, 신중한 게시물 작성, 온라인 예절 등 긍정적인 디지털 발자국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합니다. 배운 점을 요약하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추가 자료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캠퍼스는 관련 무료 온라인 강좌를 제공합니다:
  - 역량 강화 및 옹호를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https://www.gcedonlinecampus.org/_HTML/closed_course_view.php?id=76&returnurl=aHR0cHM6Ly93d3cuZ2NlZG9ubGluZWNhbXB1cy5vcmcvX0hUTUwvY2xvc2VkX2NvdXJzZV9saXN0LnBocD9hcHByb3ZhbF9hdXRvPTEmYW1wO3ZpZXc9Y2FyZA
  - 비판적 미디어 문해력
    https://www.gcedonlinecampus.org/_HTML/closed_course_view.php?id=38&returnurl=aHR0cHM6Ly93d3cuZ2NlZG9ubGluZWNhbXB1cy5vcmcvX0hUTUwvY2xvc2VkX2NvdXJzZV9saXN0LnBocD9wYWdlPTImYW1wO2FwcHJvdmFsX2F1dG89MSZhbXA7dmlldz1jYXJk
  - 디지털 안전
    https://www.gcedonlinecampus.org/_HTML/closed_course_view.php?id=75&returnurl=aHR0cHM6Ly93d3cuZ2NlZG9ubGluZWNhbXB1cy5vcmcvX0hUTUwvY2xvc2VkX2NvdXJzZV9saXN0LnBocD9hcHByb3ZhbF9hdXRvPTEmYW1wO3ZpZXc9Y2FyZA

- 유네스코 디지털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교육자용 지침서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8812/PDF/388812eng.pdf.multi

- 전략대화연구소의 디지털 시민교육 도구
  https://www.isdglobal.org/wp-content/uploads/ 2020/03/2020_03_05-YDL-Toolkit-Digital-Final.pdf

- 유럽평의회는 교육과정에 디지털 시민교육을 통합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을 위한 자료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https://www.coe.int/en/web/digital-citizenship-education/educators

- 커먼센스 에듀케이션(Common Sense Education): 디지털 시민교육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수업 계획안, 동영상, 참여형 활동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https://www.commonsense.org/education

- 국제교육기술학회(ISTE): 디지털 시민 의식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 교육자를 위한 자료와 기준을 제공하며, 수업 계획안과 활동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iste.org/

추가 자료

- 넷스마츠 워크숍(NetSmartz Workshop):
  전국실종착취피해아동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상호작용적 자료와 활동을 제공합니다
  https://www.missingkids.org/netsmartz/resources
- 에듀토피아(Edutopia):
  조지루카스교육재단(George Lucas Educational Foundation)의 프로젝트로, 디지털 시민성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주제를 다룹니다. 책임 있는 기술 사용 교육에 관한 기사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https://www.edutopia.org/
- 구글의 '인터넷 어썸(Be Internet Awesome)'
  구글은 학습자들에게 인터넷 안전과 디지털 시민 의식을 가르치기 위한 수업 계획안과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어썸'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https://beinternetawesome.withgoogle.com/en_us
- 유네스코 마하트마 간디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의 학습을 위한 게임: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0547



음모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40]

대상 학습자
› 초등 고학년 및 중등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적용 완료)

연관 과목
› 모든 과목

준비물
› 공책, 포스트잇, 카드, 사인펜

소요 시간
› 1시간 30분

혐오 기반 서사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역량을 기르고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네스코는 음모론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자들과 함께 음모론을 사전 차단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음모론 대응하기: 교사가 알아야 할 것(Addressing Conspiracy Theories: What Teachers Need to Know)」[41]은 교육자가 학습자들이 음모론을 식별하고, 해체하고, 배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략과 수업 실천 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미 음모론을 믿고 있는 학습자들과의 토론을 이끄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음모론의 확산에 대응하여 2020년 유네스코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공동으로 시작하고, 세계유대인회의(World Jewish Congress)와의 협력을 통해 실행된 #공유하기전에생각해봐요(ThinkBeforeSharing)[42] 캠페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캠페인에는 10개 언어로 제공되는 10종의 교육용 인포그래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 유네스코. (2023), 교육으로 혐오표현 대응하기: 정책 가이드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4872

41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1958

42 더 알아보기 https://webarchive.unesco.org/web/20231008075158/https://en.unesco.org/themes/gced/thinkbeforesharing

실행 영역 4: 혐오표현 인식하고 대응하기

혐오표현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은, 역사적·현재적 불평등, 불균형, 불의 등 누적된 국가적·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권력과 특권에 대한 열린 논의, 그리고 모든 차원에서 사회적 포용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제고는 그것이 개인의 웰빙과 더 넓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식 제고는 교육 환경 및 현장에서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공유된 책임의식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효과적인 개입 전략은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를 예방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과 존중의 문화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시의적절한 개입은 혐오표현이 더 심각한 형태의 차별이나 폭력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며, 표적이 된 개인과 집단이 겪을 수 있는 정서적·심리적 피해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교육자, 학부모·보호자, 학습자, 목격자, 정책 입안자 등 누구나 혐오표현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와 예방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변화의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에도 기여합니다.

실천 방안

a. **트라우마를 고려하여 지도합니다.**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갈등을 풀어내고, 폭력적 과거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와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마다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고유한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획일적인 접근법을 지양합니다. 특히 교육적 상황에서는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관점 수용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는 학습자가 다시 트라우마가 생기게 하거나, 최근의 잔혹한 사건으로 인한 분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교육 자료와 소재 등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b. **창의적인 교수법을 활용합니다.** 예술을 접목한 교수법은 학습자가 감정을 창의적 표현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우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간접적이지만 강력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 공동체 안에서 공감과 공유된 경험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기여합니다.

c. **혐오표현의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학교의 혐오표현 관련 정책과 정의를 학습자들이 인지하도록 합니다. 책임 있는 학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명확한 결과 체계를 포함한 책무 구조를 학습 환경 내에 확립하는 과정에서, 혐오표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언의 미묘한 경계를 확인하는 활동도 중요합니다.

d. **신고 체계를 구축합니다.** 따돌림이나 혐오표현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고 체계를 마련합니다. 학교는 학습 환경의 여러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하며, 학습자가 언제든지 안전하게 사건을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직원, 상담사, 또는 지정된 학교 관리자에게 직접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비밀 보장 신고 체계를 구축합니다.**
   - 추가적으로 학교는 학습자가 익명으로 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플랫폼이나 핫라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혐오표현 사례를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고 체계는 교실, 복도, 학교 웹사이트 등 학교 공동체 전반에 걸쳐 쉽게 접근하고 널리 소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의 사법 집행 기관, 단체, 정신건강 서비스 등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개입과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과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신고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교 환경의 다양한 단계에 걸쳐 포괄적인 신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자는 책임과 대응의 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학습자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e. **사건에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괴롭힘 및 혐오표현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여, 해당 행동이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f. **회복적 정의 실천을 도입합니다.**[43] 괴롭힘, 혐오표현, 부정적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감, 이해, 책임감을 이끌어내는 회복적 실천을 도입합니다. 발생한 피해를 다루고, 피해 회복 및 공동체 재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 간의 열린 소통을 장려합니다.

43 사회정서학습의 원칙, 그리고 포용과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회복적 정의는 따돌림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혐오표현의 미묘한 형태 알아보기

대상 학습자
› 초등 고학년 및 중등

연관 과목
› 모든 과목

준비물
› 활동지

소요 시간
› 45-60분

다음과 같은 혐오표현의 형태를 소개합니다.[44]

a. **미세공격(microaggressions):**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적 태도를 드러내는 미묘하고 흔히 의도되지 않은 발언이나 행동[45]

b. **암호화된 언어:** 노골적 표현 없이도 편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차별적 의미가 숨겨져 있는 우회적이거나 암호화된 표현의 사용.

c. **고정관념화:**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암묵적으로 재생산하며, 일반화와 지나치게 단순화된 가정을 통해 편향된 믿음을 강화하는 것.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의도 없이 고정관념을 반복하는 일상적 고정관념도 이에 포함됨.

d. **뒤틀린 칭찬:** 칭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모욕적 의미나 고정관념을 포함하고 있어 상대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표현.

e. **배제적 농담이나 유머:**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농담을 하거나 유머를 사용하여 겉으로는 가벼운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f. **선택적 무시:** 특정 집단의 경험이나 문제 제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축소하여 그들의 관점이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g. **이중 잣대:** 개인의 정체성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나 기대를 적용함으로써 차별적 관행을 은근히 강화하는 것

h. **미묘한 배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사회적 활동이나 대화에서 배제하여 고립감과 소외감을 조성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44 유네스코. (2023). 혐오표현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What you need to know about hate speech]., https://www.unesco.org/en/countering-hate-speech/need-know.

45 쾰른대학교. (2022). 미세공격, https://vielfalt.uni-koeln.de/en/anti-discrimination/glossary-discrimination-anti-racism/microagressions

다음 시나리오를 학습자에게 제시합니다. 각 시나리오가 어떤 형태의 미묘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질문하고 토론하도록 합니다.

a. 아이샤는 같은 반 친구 데이비드로부터 지속적으로 은근한 공격을 당합니다. 데이비드는 "와, 너 외국에서 왔는데 한국말 정말 잘하네!" 라고 말하며 아이샤의 언어 능력에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이 발언은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아이샤가 자신의 민족적 배경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의도치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미세 공격은 적대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며, 아이샤의 웰빙과 소속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정답:** 미세공격

b. 2019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테러 이후 극우 집단이 사용했던,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혐오표현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우회적인 표현은 혐오표현임을 즉각적으로 식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46]

– **정답:** 암호화된 언어

c. 교육 현장에서 사라는 수학을 매우 잘하지만, 급우들은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라야, 네가 수학을 이렇게 잘한다니 놀라워! 보통 여자애들은 수학을 잘 못하잖아."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이 발언은 사라의 수학 실력이 여학생으로서는 예외적인 경우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암묵적으로 강화합니다.

– **정답:** 뒤틀린 칭찬

d. 학습자 알렉스와 테일러가 비슷한 수준의 과학 프로젝트를 제출했습니다. 교사는 알렉스에게는 "창의적인 접근"과 "틀을 벗어난 사고"라고 칭찬하는 반면, 테일러에게는 "잘 했는데, 넌 이 정돈 당연히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사가 성별이나 인종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과 기대를 적용하는 이중 잣대의 전형적인 사례로, 의도치 않게 불평등을 강화합니다.

– **정답:** 이중 잣대

e. 점심시간, 한 무리의 친구들이 식당에 모여 주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 전학 온 마야와 아흐메드가 합류하려 다가가지만, 기존 무리는 두 사람을 대화에 끼워주거나 초대하려는 시도 없이 자기들끼리 대화를 이어갑니다. 바디랭귀지와 사적인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이러한 미묘한 배제는 마야와 아흐메드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과 사회적 고립감을 줍니다.

– **정답:** 미묘한 배제

46 극우집단의 암호화된 언어 관련 가디언지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mar/17/far-right-groups-coded-language-makes-threats-hard-to-spot



연극 활동으로 탐색하는 혐오표현

대상 학습자
› 초등 고학년 및 중등

연관 과목
› 시민교육, 역사 및 정부, 사회과, 체육

준비물
› 공책, 포스트잇, 카드, 사인펜

소요 시간
› 30분-2시간

학습 목표

학습자가 혐오표현의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함양합니다.

진행 방법

a. **도입(10분):** 단어의 힘과 그것이 개인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간단한 토론으로 시작합니다. 혐오표현의 개념과 다양한 형태를 소개합니다.

b. **정체성 탐구(15분):** 인종, 종교, 성별 등 정체성의 다양한 측면을 논의합니다. 각자의 환경과 관련성이 높은 영역을 선택합니다. 학습자에게 이러한 정체성과 관련된 단어나 문구를 카드에 적도록 합니다. 카드를 수거한 후 학습자들에게 무작위로 배분합니다.

c. **등장인물 설정(10분):** 각 학습자는 하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카드를 받습니다. 카드에 적힌 단어와 연관된 감정과 경험을 구현하는 인물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표현하는 데 있어 창의성을 발휘해보도록 합니다.

d. **소그룹 대본 작성(15분):** 소그룹으로 나뉘어 학습자들이 협력하여 자신에게 배정된 정체성에 혐오표현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짧은 대본이나 독백을 작성합니다. 감정, 관계, 사회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도록 안내합니다.

e. **리허설(20분):** 학습자들이 장면을 연습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혐오표현의 정서적 영향을 전달하기 위해 몸짓, 말투, 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합니다.

f. **공연(40분):** 학습자들이 장면을 발표하며, 혐오표현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강력하게 탐구합니다. 각 공연 후에는 밀려온 감정과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 간단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g. **성찰 및 토론(15분):** 활동에 대한 학급 전체의 성찰로 마무리합니다. 활동 중 겪은 어려움, 얻은 통찰, 혐오표현에 맞서는 데 있어 공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학습자들이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도록 격려합니다.

추가 자료

- 혐오표현 바로 알기 |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2Xvx_ZTWNd8
- 혐오를 타고나는 사람은 없다: 교육을 통해 혐오표현 대응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2PXLvKT1U4M



역사적으로 뿌리 내린 갈등 (직·간접적으로) 풀어내기

주: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민족적 종교적 갈등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쟁이나 잔혹 범죄, 그 밖의 인권 침해, 차별이나 억압의 역사, 또는 식민지배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억은 특히 이 핸드북을 활용하는 부모, 지역사회의 성인 구성원 및 교육자들에게 더욱 생생하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어려운 과거를 직접적으로 다루기가 비교적 수월한 반면,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는 예술 등 창의적 방법을 활용해 트라우마에 보다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교육자들은 학습자나 학부모의 반발 또는 불편함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거나 필요한 경우, 읽기 자료나 선정된 사례 연구는 불평등, 차별, 잔혹 행위에 대항하는 긍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시선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역사적 앙금을 대화를 통해 풀어내기 위한 두 가지 접근법, 즉 직접적 접근과 간접적 접근을 소개하며, 이 두 방식은 서로 다른 교육 환경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 학습자
› 초등 고학년 및 중등

연관 과목
› 모든 과목

준비물
› 포스트잇,
카드, 사인펜

소요 시간
› 2시간

1안. 직접적 방법: 사례 논의하기

주: 아래 활동은 주로 14~18세 사이의 고학년 학습자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복잡한 역사적·사회정치적 논의를 포함하고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인지적 성숙도와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학습자들은 역사적 불평등, 사회적 트라우마, 폭력적 역사가 공동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층 논의를 통해 배움을 얻고 더 깊이 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적절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세심한 방식으로 도입하되, 호흡이나 마음챙김과 같은 사회정서적 준비 활동을 먼저 진행한 뒤 다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감한 언어 사용의 중요성. 민감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포용적이고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인종, 민족, 성별, 성적 지향, 종교, 장애 여부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소외시키거나 해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이나 고정관념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자가 존중과 포용을 담은 편견 없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학습자가 소중히 여겨지고, 목소리가 반영된다고 느끼며,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

a. **분위기 설정하기(10분):** 토론 중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방식을 함양하기 위해 학급 내 공동 규범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난, 책임 전가, 우월감, 모욕적 언어, 차별적 언어와 관련된 단어나 표현을 목록으로 만들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b. **사회·정서적 준비 돕기(5분):** 학습자들이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간단한 호흡법이나 마음챙김 활동처럼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정서적 방법을 익히도록 합니다. 유네스코 마하트마 간디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47]는 이러한 간단한 사회정서학습 활동을 다수 제공하고 있습니다.

c. **사례 소개하기(15분):** 불평등, 차별, 잔혹 범죄와 관련된 국가적·지역적 역사를 조명하는 읽기 자료나 사례를 제공합니다. 참여자들이 자료를 개별적으로 읽고 핵심 내용을 성찰하도록 합니다.

d. **소그룹 토론하기(30분):** 참여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읽기 자료의 특정 측면을 각 모둠에 배정하여 토론합니다. 권력 역학과 사회 구조를 고려하면서 역사적 유산이 오늘날의 문제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깊이 탐구하도록 독려합니다.

e. **전체 공개 토론(40분):** 소그룹을 모아 진행자의 주도 아래 공개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 질문을 활용하여 권력, 특권, 사회적 포용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탐색합니다.

f. **참여형 지도 만들기(25분):** 칠판이나 플립차트에 역사적 연표와 유산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참여자들이 주요 사건, 불평등, 이정표를 추가하여 해당 지역의 역사를 담은 참여형 지도를 함께 완성하도록 합니다.

g. **성찰과 실천 계획 세우기(20분):** 개인 일지 작성을 통한 성찰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참여자들이 보다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방안 몇 가지를 일지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h. 이 활동은 혐오표현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참여자들이 포용성 증진과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성찰하도록 장려합니다.

i. 남부빈곤법률센터(SPLC, Southern Poverty Law Center)는 관용 증진, 상호 이해, 혐오표현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자료와 활동을 제공합니다: Southern Poverty Law Center (splcenter.org)[48]

47 유네스코 마하트마 간디 평화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 친절한 뇌 만들기 [Building Kinder Brains], https://mgiep.unesco.org/

48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www.splcenter.org/

2안. 창의적 방법: 예술이나 음악 활용하기

주: 교육자는 이 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학습자의 준비도와 정서적 성숙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해당 내용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본 배경 지식과 정서적 회복탄력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활동은 주로 14~18세 학습자에게 적합합니다.

학습 목표

창의적 활동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과 그 영향을 인식하고 이해합니다.

진행 방법

a. **감정 탐구(15분):** 역사적 사건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친 영향에 대한 토론을 시작합니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b. **명상 안내(10분):** 차분하게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간단한 안내 명상을 진행하며, 학습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c. **창의적 활동(30분):**

- A안: 학습자들이 역사적 갈등에 대한 감정이나 성찰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도록 독려합니다. 또는 통합과 치유를 상징하는 협동 미술 작업을 도입하여 보다 긍정적인 행동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 B안: 논의된 역사적 맥락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으로 구성된 재생목록을 틀어줍니다. 학습자들이 음악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역사적 서사와의 연결고리를 성찰하도록 합니다.

d. **성찰일지 작성(15분):** 창의적 활동 후 학습자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해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점은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안내합니다.

e. **토론(15분):** 역사적으로 형성된 갈등을 이해하는 데 이 활동이 미친 영향과, 트라우마를 간접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 창의적 표현의 가능성에 대해 그룹 토론으로 마무리합니다. A안(시각적 표현 만들기)을 진행한 경우, 학습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 관람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동 트라우마 및 상실 국립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Trauma and Loss in Children)는 트라우마 인식 교육 분야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Trauma Informed Care Training - Starr Commonwealth[49]

49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starr.org/

역사적 사례 탐구하기

대상 학습자
› 중등

연관 과목
› 시민교육, 역사 및 정부, 사회과, 체육

준비물
› 인쇄된 사례 읽기자료

소요 시간
› 1시간

학습 목표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혐오표현이 역사적으로 미친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데 있어 혐오표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합니다. 이 활동은 역사적 사례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지어 생각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혐오표현의 결과를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진행 방법

a. **사례 소개하기:** 혐오표현과 폭력이 연루된 역사적 사례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 또는 쇼아(Shoah)로도 알려진 유대인 학살, 1994년 르완다 투치족 학살 등이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수업의 초점에 따라 자신이나 교육자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사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b. **조사 활동 지원하기(15분):**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조사 지침을 안내합니다. 학습자들이 1차 자료와 2차 자료, 다큐멘터리, 생존자 증언, 학술 논문 등을 폭넓게 탐색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쌓도록 독려합니다.

c. **소그룹 토론(30분):** 선택한 사례를 기준으로 소그룹을 구성합니다. 역사적 맥락, 혐오표현의 역할, 폭력으로 이어진 결과에 대한 모둠 토론을 진행합니다.

d. **발표 준비(20분):** 각 모둠이 조사 결과를 요약한 간단한 발표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중요: 선택한 사례를 논의할 때 민감성과 존중의 태도가 필요함을 반드시 강조합니다.

e. **발표(40분):** 각 모둠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합니다(모둠당 5~10분). 발표가 끝난 뒤에는 질문과 자유로운 토론을 장려합니다.

f. **성찰 및 토론(15분):** 다양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대한 성찰적 토론을 진행합니다. 혐오표현과 폭력이 피해 공동체에 미친 장기적 결과를 탐구하고, 현대의 혐오표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역사적 교훈이 지니는 의미를 논의합니다. 활동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혐오표현 예방과 대응 전략

주: 혐오표현이 방치된 채 확산될 경우 그 결과는 복잡하고 심각합니다.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과 개인을 겨냥한 폭력 행위에 앞서 빈번하게 나타나며,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혐오표현은 사람을 비인간화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심리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 범위, 규모, 제도화 수준에 따라 혐오표현은 생활 및 학습환경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킵니다.

혐오표현은 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 집단과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중적 기능을 합니다.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소통 도구로서 작용하며, 흔히 '타자'로부터의 위협을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유해한 반응을 자신의 집단을 영웅적으로 수호하는 행위로 포장합니다. 혐오표현은 폭력이 싹틀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고 폭력적 극단주의의 출현을 촉진합니다. 혐오표현과 폭력 선동, 편견, 차별적 행위 사이의 연관성은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되었습니다.

대상 학습자
› 초등 고학년 및 중등

연관 과목
› 시민교육,
역사 및 정부,
사회과

준비물
› 인쇄된 사례
읽기자료

소요 시간
› 1시간

학습 목표

사례를 통해 혐오표현의 결과를 살펴봅니다. 학습자들이 온라인상의 혐오표현 확산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기릅니다.

진행 방법

a. 학급을 3~5명으로 구성된 4개 이상의 모둠으로 나눕니다.

b. 각 모둠에 아래 사례 중 하나를 배정합니다

c. 각 모둠에 온라인상의 혐오표현 확산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도록 합니다. 정책 권고안, 소셜 미디어 기업을 위한 지침, 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 모든 모둠이 자신들의 방안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아래 사례 연구는 혐오표현의 실제 사례와 혐오서사의 확산이 어떻게 폭력의 심화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
  2019년 부활절에 스리랑카의 교회와 고급 호텔을 겨냥한 ISIS 관련 연쇄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최소 29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테러는 현지 극단주의 단체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주로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적 극단주의, 지정학적 영향, 그리고 해당 국가 내 종교적·민족적 소수 집단을 겨냥한 혐오표현의 확산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50]

50 "스리랑카 테러: 부활절 폭탄 테러 1주기를 맞이하며." BBC 뉴스. https://www.bbc.com/news/world-asia-52357200

- **브라질 성소수자(LGBTIQ+) 공동체에 대한 공격:**
  온라인 플랫폼이 흑인, 성소수자, 원주민 공동체 등 소외된 집단을 겨냥한 모욕적 고정관념을 유포하고, 폭력을 선동하며, 이들 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데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혐오표현은 차별적 행위와 신체 공격 및 살인을 포함한 실제 폭력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51]

-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총기 난사 사건과 세계적 파장:**
  페이스북으로 공격 장면을 생중계한 가해자는 백인 우월주의와 반이슬람 이념에 따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격에 앞서 가해자는 혐오적 언사와 반이민·반이슬람 정서를 담은 성명서를 온라인에 게시했는데, 이 성명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전 세계적으로 극단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개인들의 급진화와 결집을 촉진했습니다. 이 사건은 혐오 이념을 전파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데 있어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을 부각시켰으며, 소셜 미디어에 대한 강화된 규제와 온라인 극단주의 대응 노력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52]

51 브라질의 성소수자(LGBTQ) 공동체, 급증하는 폭력에 맞서 싸우다
[Brazil's LGBTQ community faces surging violence, but they're fighting back] | 열린민주주의(OpenDemocracy)
https://www.opendemocracy.net/en/democraciaabierta/violencia-anti-lgbtq-brasil-en/

52 전략대화연구소. (2024). 크라이스트처치 사건 5년 뒤: 위협의 지형과 정책적 대응 평가하기
[Five years on from Christchurch: Assessing the evolution of the threat landscape and policy response].,
https://www.isdglobal.org/digital-dispatch/five-years-on-from-christchurch-assessing-the-evolution-of-the-threat-landscape-and-policy-response/



주변인 개입

대상 학습자
› 초등 고학년 및 중등

연관 과목
› 시민교육, 역사 및 정부, 사회과, 체육

준비물
› 공책, 포스트잇, 카드, 사인펜

소요 시간
› 1시간 15분

학습 목표

혐오표현, 희롱, 괴롭힘 사건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이를 위해 사건 밖에 있던 주변인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건에 개입하는 적극적 문화를 증진합니다. 이 활동은 공감, 용기, 그리고 책임감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행 방법

a. **방관자 효과와 주변인 개입 전략 이해하기(30분):** 방관자 효과와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직접 개입, 주의 분산, 권한 위임, 사건 기록 등 다양한 개입 전략을 소개합니다.

직접 개입:
혐오표현 상황에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며 불쾌감을 표현합니다. 대립을 유발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여 해당 행동을 자제시킵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 배경에 대한 학급 친구의 혐오표현을 우연히 듣게 된 경우, 발언자에게 차분히 말하며 직접 개입합니다. “그런 말은 상처가 되고 용납될 수 없어. 여기서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환경을 함께 만드는 데 집중하자.”

주의 분산: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의를 돌려 개입합니다. 다른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거나 긍정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토론 중 한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의 외모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교육자는 주의 분산 전략을 활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의견을 말해줘서 고맙지만, 원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자. 우리는 여기서 긍정적으로 배우고 토론하기 위해 모인 거야. 오늘 다루는 주제에 대해 의견 있는 사람?” 이 방식은 대화를 혐오표현에서 벗어나 본래의 학습 토론으로 이끌어줍니다.

권한 위임:
상담사, 부장교사, 학교 관리자 등 권한을 가진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자가 학습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혐오표현 패턴을 목격한 경우 상담사에게 책임을 위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실에서 혐오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보다 포괄적인 대응을 위해 상담사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드리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b. **시나리오 및 역할극(30분):** 혐오표현이나 괴롭힘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담은 시나리오 카드를 활용합니다. 참여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 모둠에 시나리오를 배정합니다. 모둠별로 효과적인 주변인 개입을 보여주는 역할극을 구상하고 발표하도록 합니다.

c. **그룹 성찰(15분):** 각 역할극 후, 사용된 개입 전략의 효과에 대한 그룹 토론을 진행합니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추가 자료

- 주변인 개입에 관한 더 많은 정보와 자료, 무료 교육 프로그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ight To Be 홈페이지:
  https://righttobe.org/

추가 참고 자료 및 읽을거리

아래 자료들은 교수 활동에 활용하거나 자체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

- 안네 프랑크의 집
  – 선택의 자유(Free2Choose) 창작 활동
  https://www.youtube.com/channel/UCtrBzF6SIaPvDckXl2G_Fsg
- 상식교육-온라인 혐오표현 대응하기
  [Common Sense Education
  – Countering Hate Speech Online].
  https://www.commonsense.org/education/digital-citizenship/lesson/countering-hate-speech-online
- 극단적 대화 – 혐오를 멈추고, 오늘 대화를 시작하세요
  [Extreme Dialogue – Extreme Dialogue
  – Stop hate. Start the dialogue today].
  https://extremedialogue.org/

발표 자료와 활동

- 유럽평의회, 북마크-인권 교육을 통한 혐오표현 대응 매뉴얼
  https://www.coe.int/en/web/no-hate-campaign/bookmarks-connexions
- 유럽평의회, 선거 과정에서의 혐오표현 대응 도구
  https://www.coe.int/en/web/electoral-assistance/-/countering-hate-speech-in-electoral-processes
- 유럽평의회, We CAN! – 대항 서사와 대안 서사를 통한 혐오표현 대응 행동
  https://www.coe.int/en/web/no-hate-campaign/we-can-alternatives1
- 혐오대항 교육 – 교실 수업 자료모음
  https://www.educateagainsthate.com/category/teachers/classroom-resources/
- 전략대화연구소, 디지털 시민 교육 프로그래밍 도구
  https://www.isdglobal.org/isd-publications/digital-citizenship-education-programming-toolkit/
- SELMA: 혐오 해킹하기
  (EU 예산으로 제작된 유럽 중심 프로그램)
  https://hackinghate.eu/

읽을거리와 강좌

- 유럽평의회 – 인권 표현 도구
  https://pjp-eu.coe.int/en/web/human-rights-speech/home
- 딧치더라벨 – 청소년 지원 단체
  (정신 건강, 따돌림, 대인관계)
  https://www.ditchthelabel.org/
- 사실 마주하기 온라인 강좌
  http://www.facingfacts.eu/
- 역사와 스스로를 마주하기
  https://www.facinghistory.org/
- 전략대화연구소 – 시민사회를 위한 온라인 반유대주의 대응 도구
  https://www.isdglobal.org/isd-publications/online-antisemitism-a-toolkit-for-civil-society/
- 전략대화연구소 – 허위정보 탐지 기초 가이드
  https://www.isdglobal.org/isd-publications/the-101-of-disinformation-detection/
- 유네스코 마하트마 간디 평화·지속가능 발전교육센터 – 사회정서학습 역량 개발
  https://webarchive.unesco.org/web/20240614025651/https://mgiep.unesco.org/sel-for-everyone
- 국경없는 기자회 – 언론자유지수
  https://rsf.org/en/index?year=2021
- 일어나서 말하세요 – 열린 교과서
  https://open.lib.umn.edu/publicspeaking/
- 유네스코 방콕 – 지속가능발전교육·세계시민교육 기반 행복한 학교 프로젝트
  https://web.archive.org/web/20231219094609/https://bangkok.unesco.org/theme/happy-schools
- 유네스코 – 세계시민교육 주제 및 학습 목표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32993
- 유네스코 – 교육으로 혐오표현 대응하기: 정책 가이드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4872
- 유네스코 – 교육으로 폭력적 과거 극복하기: 정책 가이드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95088
- 유네스코 – 인종차별 및 차별 대응 도구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7454/PDF/387454eng.pdf.multi
- 유네스코 – 미디어·정보 문해력: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현명하게 클릭하기!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7068
- 유네스코 마하트마 간디 평화·지속가능발전 교육센터 – 청소년 평화 구축: 교육을 통한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청소년 주도 가이드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0547
- 유니세프 – 자녀와 혐오표현에 관해 이야기하는 방법
  https://www.unicef.org/parenting/how-talk-your-children-about-hate-speech

사례: 페이스북과 미얀마 로힝야(Rohingya) 민족 사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메타(Meta)는, 자사 플랫폼인 페이스북을 통한 혐오표현, 허위정보 확산, 분열적 콘텐츠 증폭으로 인해 미얀마 로힝야 사태 악화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미얀마의 무슬림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은 광범위한 박해와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다음은 페이스북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주요 요인들입니다:

1. **혐오표현과 허위정보:** 페이스북은 로힝야족을 겨냥한 혐오표현과 허위정보의 주요 유통 경로가 되었습니다. 극단주의 단체들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혐오 콘텐츠를 퍼뜨렸고, 이는 긴장과 폭력의 고조로 이어졌습니다.
2. **알고리즘에 의한 증폭:**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자극적이고 분열적인 콘텐츠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혐오 콘텐츠와 허위정보가 더 많은 노출과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3. **콘텐츠 관리 부재:** 메타는 자사의 커뮤니티 기준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삭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플랫폼은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억제하지 못했고, 허위정보와 혐오표현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확산된 온라인 혐오표현과 허위정보는 로힝야 공동체를 향한 폭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이 로힝야 마을에 대한 공격을 조직하는 데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례: 평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4 Peace)

평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4 Peace) 프로젝트는 사회의 디지털화가 정보 흐름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유해 콘텐츠 확산의 수단이 되어 갈등 역학과 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유네스코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케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인도네시아 세 개의 시범 국가에서 잠재적으로 유해한 콘텐츠의 근본 원인, 규모, 영향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의 효과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을 포함한 온라인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시민사회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통한 평화 증진을 도모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으며,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6의 달성에 기여합니다. 또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온라인상에서 우려스럽게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불관용에 맞서기 위해 출범시킨 유엔 혐오표현 대응 행동 계획에도 기여합니다.

추가 정보: https://www.unesco.org/en/social-media4peace

사례: 소셜 미디어에서의 홀로코스트 부정과 왜곡, 공격받는 역사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양극화되고 혐오적인 이념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혐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2022년 유네스코와 유엔은 세계유대인회의(WJC)의 지원을 받아 혐오서사의 확산을 조사하는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유대인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증거를 유대인에 관한 낭설과 '유대인 권력'에 관한 음모론으로 대체하며 반유대주의 음모 서사를 강화하는 홀로코스트 부정 및 왜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려스럽게도 이러한 서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홀로코스트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젊은 세대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혐오표현과 폭력적 이념의 확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홀로코스트 부정 및 왜곡은 홀로코스트 부정과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콘텐츠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플랫폼을 포함하여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홀로코스트 관련 콘텐츠의 거의 절반(49%)이 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텔레그램에서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홀로코스트 부정과 왜곡이 은밀하고 암호화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 확산을 억제하려는 노력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밈과 유머를 활용하여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을 조장하면서 홀로코스트를 미화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더욱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혐오서사가 더 넓은 대중에게 수용되고 정당성을 얻도록 하며, 인종차별 및 백인 우월주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새로운 구성원을 모집하고 급진화하며, 집단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홀로코스트 부정과 왜곡은 동성애 혐오, 여성 혐오, 인종차별 등 다른 형태의 온라인 해악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정보: 유네스코·유엔. (2022). 소셜 미디어의 역사 왜곡 – 홀로코스트 부정과 왜곡.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2159

unesco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세계시민교육으로 혐오표현 대응하기

교육자를 위한 핸드북

이 핸드북은 2023년 유네스코와 유엔 집단학살 방지 및 보호책임 사무소(Office on Genocide Prevention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OSAPG)가 공동 발간한 「교육으로 혐오표현 대응하기: 정책 가이드(2023)」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자들이 혐오표현의 정의, 발생 요인, 그리고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적 틀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성을 증진하고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며 책임 있는 시민성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포용적 학습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실천, 활동 및 자료를 제시하여,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평화의 문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9 789230 002879

4 양질의 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